



Juntos seguimos haciendo historia

함께 만들어온 70년, 함께 열어갈 미래
1955-2025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목차

1. 축사	5
1-1.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총동문회장 정길화	
1-2. 제12대 한국외대 총장 박정운	
1-3. 제28, 29, 30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권순한	
1-4. 제31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양인집	
1-5. 주한 스페인 대사 Julio Herraiz España	
2. 학과 역사	12
2-1. 학과 주요 연혁	
2-2. 사진으로 보는 스페인어과 70년	
3. 학과 현황	36
3-1. 역대 학과장	
3-2. 역대 퇴임 교수진	
3-3. 현직 교수진	
3-4. 역대 원어민 교수진	
3-5. 현직 원어민 교수진	
3-6. 스페인어권 교류협정 체결 대학 현황	
3-7. 교환, 파견학생 현황	
3-8. 재학생 현황	
3-9. 졸업생 현황	
3-10. 최근 3년간 이중전공생 현황	
4. 재학생 활동	46
4-1. 스페인어과 학생회 및 집행부 소개	
4-2. 동아리 소개	
5. 동문 활동	60
5-1.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총동문회	
5-2. 외맥산악회, 골프회, 문화동아리	
5-3.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5-4. 총동문회 포럼	
5-5. 중남미 동문회	
5-6. 장학금과 근조기	
6. 특별 기고	72
6-1. 돈키호테 정신	
6-2. 승부를 걸어볼 미개척지이다	
6-3. 한국과 중남미, 스타트업으로 연결되다	
6-4. '녹색' 시대 전환의 새로운 동반자,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6-5. 한국과 중남미, 문화관광 협력의 새로운 비상	
7. 동문 명단 및 년도별 졸업 사진	84
7-1. 동문 명단	
7-2. 년도별 졸업 사진	
8. 편집진 소개	110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총동문회장 정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55년, 대한민국 최초로 '서반아어과'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외대 개교(1954년) 이후 여섯 번째로 개설된 학과였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희(古稀)의 역사를 기리는 기념행사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릇 기록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그 동안 9천여 동문과 재학생들은 학과의 웅숭깊은 전통을 수립하고, 빛나는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갔습니다. 외교계를 필두로 무역, 학계, 언론, 문화예술 등 각계각층에서 동문들은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고도성장을 달성할 때에 우리 동문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룬 활약상은 청사에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페인어문학 역사는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70년 전 뿌린 씨앗이 어느덧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뜻깊은 해를 기념하고자 2025년 상반기에는 학과와 재학생, 총동문회가 힘을 모아 제1회 스페인어권 영화제와 스승의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월 6일에는 '스페인어과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과의 전통과 연륜을 되새기고, 새로운 70년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념행사를 통하여 원로 동문과 교수진, 재학생은 물론,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졸업생, 유관 학계 인사, 주한 스페인어권 외교사절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세월 이어온 학과 공동체의 우정과 연대, 그리고 동문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를 재확인하는 의미있는 만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다음 80주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합니다.

“Soñemos el sueño imposible, luchemos contra el enemigo invencible, soportamos el dolor insoportable y atrapemos la estrella inalcanzable en el cielo....”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에 도달하자...) - Miguel de Cervantes, Don Quixote(1605)

학창시절 한번쯤 읽어보았던 명작 <돈키호테>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오래 전 같은 꿈을 꾸었던 동문들입니다.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와 자료집 발간을 통하여 선후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관심이 곧 우리 스페인어과의 자긍심이자 미래를 여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Juntos vamos haciendo camino....



제12대 한국외대 총장 **박정운**

스페인어과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955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스페인어과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0년 동안 스페인어과는 대한민국과 스페인어권 국가를 잇는 든든한 가교로서,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가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스페인어과가 생기던 순간, 스페인어과 동문은 한국에 아직 낯설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화라는 미지의 세계에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이후 그 도전은 동문 개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제화에 기여한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스페인어과의 역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외대인의 기상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개척과 도전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스페인어과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동시에 스페인어권 21개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왔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 전문가 과정, 현장실습,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전문 인재를 꾸준히 배출해 왔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법률,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인재가 바로 한국외대와 스페인어과의 자랑입니다.

현재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 불확실한 정치와 경제 상황, 그리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기술혁신은 대학에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스페인어과가 보여준 지난 70년의 도전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됩니다.

AI와 초연결 사회가 만들어내는 변화의 시대에 외대는 기술적 흐름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도 소통과 지혜를 갖춘 다면적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스페인어과도 대학과 손을 잡고 인류의 공존과 협력에 기여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로서의 외대인을 배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스페인어과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며, 학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교수님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7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스페인어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28, 29, 30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권순한**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치 제 생일인 것처럼 자축하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1963학년, 그러니까 학과가 생긴 지 8년째 되는 해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70주년이라니, 그간 6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많은 선후배 여러분 앞에서 축하를 하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우리 스페인어과는 비록 외대에서 두 번째 해에 문을 열었지만 학교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학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계, 정관계, 학계, 재계 등 각계각종에서 수 많은 졸업생이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문들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지구 반대편의 중남미 대륙에 대거 진출해서 치열하게 삶을 개척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민간 외교관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으로서 중남미 대륙을 방문해 보니,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 스페인어과 동문이 현지 교민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동문회에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스페인어과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내외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1만 명 이상의 스페인어과 동문에게 “그간 참으로 수고 하셨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 잘해 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삶에서 70세는 고희(古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오래 살았음을 축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남은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통해 우리 한국외대는 세계 굴지의 외국어대학으로 입지를 굳혔고,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방문할 정도로 인정받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아무리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다지만, 전통이란 과거가 멈춰버린 화석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현재이자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명문대학, 명문학과가 되려면, 모든 구성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한편 모교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후배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고, 격려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학과 창립 100주년을 맞을 때는 스페인어과가 대한민국 최고의 학과로 빛나고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리를 잊은 사람에게도 미래는 없습니다. “국적은 바뀌도 학적은 바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외대의 전통, 특히 스페인어과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스페인어과 정길화 동문회장과 김경희 학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문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1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장 양인집

70년 전 첫인사 “¡Hola!”로 시작된 스페인어학과의 여정은 이제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Viva HUFS Español!”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페인어과는 모교의 위상과 함께 성장하며, 언제나 ‘외대 정신’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모교의 총장과 총동문회장을 모두 배출한 학과로서 외대 발전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스페인어는 단순히 하나의 언어가 아닙니다. 문학, 예술, 사회 영역에서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 안토니오 가우디, 가르시아 마르케스 그리고 탱고와 플라멩코가 모두 스페인어권이 인류에 선사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Gracias!”, “¡Amor!”, “¡Fiesta!”를 말하며 스페인어로 꿈을 꾸고, 사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페인어과는 국가와 세계를 향한 문을 연 요람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동문들이 외교관과 회사원, 교수로 이곳에서 자라나,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지금도 중남미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본대본과(本大本科)”라 불리며 인정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0년간 배출한 동문들의 실력과 굳게 쌓아온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학창 시절 기억 속에도 세계민속예술제전 무대에서 정열적인 플라멩코 춤을 추던 붉은 옷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모의올림픽에서 거의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따던 기개와 단합력도 스페인어과의 상징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스페인어과는 100주년을 향해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더욱 단합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열정의 스페인어과로 발전해 나갈길 기대합니다. 모교와 동문이 함께하는 그 길 위에, 변함없는 자긍심과 우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한 스페인 대사
Julio Herraiz España

Me complace felicitar al Departamento de Español de la Universidad Hankuk de Estudios Extranjeros en su septuagésimo aniversario. Para España, y para todo el mundo hispanohablante, constituye un orgullo poder conmemorar que una institución de tan alto prestigio decidiera hace setenta años comenzar a enseñar, estudiar y difundir nuestra lengua, así como la cultura y la literatura que la acompañan.

Pertenecemos a una comunidad de seiscientos millones de personas que compartimos el español en todo el mundo y que sigue aumentando cada año, entre otras razones, gracias a la extraordinaria labor de facultades y departamentos universitarios de español y filología hispánica como los de la Universidad Hankuk de Estudios Extranjeros.

Un departamento que inició una ejemplar labor pionera en Corea, traducida con el tiempo en un movimiento que ha llevado hoy a la existencia de una quincena de secciones similares en otras instituciones, y a que más de treinta universidades coreanas enseñen el español, permitiendo a su vez crear una densa red de académicos, hoy agrupados en la Asociación Coreana de Hispanistas.

Dirijo hoy mi reconocimiento agradecido a los protagonistas de esta historia de éxito de siete décadas: los profesores y estudiantes que día a día han dedicado y siguen dedicando su trabajo y su esfuerzo a favor de la difusión del español en Corea, vector precioso de diálogo e intercambio entre nuestras sociedades y nuestras culturas. A todos ellos, ¡gracias y felicidades!



Templo del Gran Jaguar – 재규어 신전
En medio de la selva tropical del Petén se alza el majestuoso Templo del Gran Jaguar, símbolo de la grandeza de la civilización maya. 페텐 밀림 속에서 피어난 마야 문명의 장엄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Lago de Atitlán – 아티틀란 호수
Rodeado por majestuosos volcanes y pintorescos pueblos mayas, el Lago de Atitlán es considerado uno de los lagos más bellos del mundo. 동장한 화산과 정형색채의 마야 마을이 둘러싸인 아티틀란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 손꼽힌다.



Ruinas de El Carmen – 엘 카르멘 유적지
Las ruinas de la Iglesia y Convento de El Carmen, con su imponente fachada barroca, son testimonio de la historia colonial y los terremotos que marcaron a Antigua Guatemala. 바로고 양식의 인상적인 외시드를 지닌 교회의 수도원이 유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역사와 연대구성을 잘 드러낸 지점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Lago Petén Itzá – 페텐 이차 호수
Ubicado en el corazón de la selva tropical del norte de Guatemala, el Lago Petén Itzá es un lugar de serenidad y belleza natural. 과테말라 북부 열대우림 정가운데 위치한 페텐 이차 호수는 고요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선사한다.



Arco de Santa Catalina – 산타 카탈리나 아치
Uno de los iconos más reconocidos de Guatemala, el Arco de Santa Catalina en Antigua Guatemala, se erige frente al majestuoso Volcán de Agua. 화산정자를 대표하는 상징물 중 하나인 산타 카탈리나 아치는 연타구와 케레밀라 중심에 서 있으며, 웅장한 아치가 화산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학과 주요 연혁

1954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설
1955	스페인어과 창설
1958	스페인어과 1기 졸업생 배출
1959	전국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무료강좌 개최
1961	과테말라 대통령 방문
1961	중남미 문화연구회 주최 서반아어 연극
1962	중남미 문화연구회 서반아어 연극 ‘La gitana’ 공연
1965	멕시코국립대학총장 Ignacio Chavez 명예문학박사학위수여
1965	멕시코 국립대학교, 콜롬비아 아메리카 대학교, 코스타리카 대학교, 엘살바도르 대학교, 과테말라 산 카를로스 대학교와 교육교류협정 체결
1966	개교 12주년 기념 서반아어 연극 ‘삶증난 아가씨’ 공연
1966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Complutense)와 교육교류협정 체결
1970	엘살바도르공화국 외무장관 명예문학박사학위 수여식
1973	중남미 문제 연구소 설립.
1974	세계민속예술제전 스페인어과 공연
1977	과테말라 외상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1977	스페인 대사 방문 및 도서 기증식
1978	남미 콜롬비아 대사 방문 및 각과대표촬영
1979	글로벌 캠퍼스 스페인어과 신설
1981	서어서문학회 창립
1982	스페인어과 학술지(AULA)창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우또노마 대학교와 교육교류협정 체결.
1982	주한 콜롬비아 대사 명예정치학박사학위 수여식
1982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 방문 강연
1983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학총장 루이스 가리바이 구띠에레스 명예정치학박사 학위수여식
1983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우또노마 대학 갈리바이 총장 방문

1984	과달라하라대 아우또노마 총장 본교 방문
1984	멕시코 연구소 개소식
1984	칠레대학과의 교육교류 협정
1985	스페인 왕국 라미로 페레스 마우라 데 에레라 대사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식
1985	콜롬비아 공화국 아우구스토 라미레스 오감보 외상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수여식
1985	콜롬비아 공화국 수여 - 통역대학원장 김이배교수, 우덕룡 교수 훈장수여식
1985	코스타리카 대사 도서증정식
1985	콜롬비아 대사 도서 증정식 및 특강
1985	콜롬비아 외상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1985	스페인 대사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1985	스페인국왕 훈장수여식(이사장)
1993	페루공화국 대통령 알베르토 후지모리 후지모리 명예정치학박사 수여식
1994	김흥배 박사 스페인 정부 훈장 수여
1996	콜롬비아 공화국 에르네스토 삼베르 삐사노 대통령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
1996	멕시코대사 방문 및 단체협약체결, 정대철 의원
2002	콜롬비아 공화국 외교장관 까를리나 바르꼬 - 이삭스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
2004	서반아어과를 스페인어과로 명칭 변경.
2006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레오넬 페르난데스 레이나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
2006	엘 살바도르 공화국 대통령 엘리아스 안토니오 사카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
2006	스페인어문학회25주년 총회 개최

2008	스페인 살라망카대학교 총장방문
2008	과테말라 부통령 초청특강
2008	한·스페인 환경연구소 창립총회
2008	스페인어과 발전기금 전달
2009	스페인어과 박재진 동문 발전기금 전달식
2009	과테말라, 멕시코, 도미니카 대사 방문
2009	스페인어과 총동문회 장학금 전달식
2009	스페인 대사 Juan Leña 초청 강연
2010	박철 총장, 스페인 정부 최고 훈장인 “까를로스 3세 십자훈장” 서훈
2012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 한국외대 연설
2013	스페인어의 날(Día de la Lengua Española) 행사
2013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쿠바 호세마르티 문화원 : MOU 체결 및 Club Martiano Coreano 창단식
2014	세르반테스 문화원 아올라 개설
2014	박희권 주 페루대사 초청 특강: 글로벌 시대의 성공전략
2014	주한 아르헨티나대사 특강
2014	스페인어과 영화제
2014	스페인어과 3개국 합작 영화제
2014	스페인어과 예술제 개최
2015	전영욱 대사 특강
2015	스페인어과 창립 60주년 기념식
2015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2016	주한스페인대사관과 공동 주최 ‘Antonio de Ulloa’ 특강
2017	스페인 나바라대학교, 멕시코 마데로대학교, 칠레 탈카대학교, 페루 리마대학교 및 볼리비아 산시몬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2017	파나마 부통령 초청 특강
2018	주한콜롬비아대사관 및 주한파나마대사관과 교류협정 체결
2018	주한 에콰도르 대사 초청 콜로키움

2018	주한 과테말라 대사 초청 콜로키움
2019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초청 콜로키움
2019	주한 스페인 대사 초청 콜로키움
2019	장인탁 강의실 헌정식
2020	스페인 산 파블로 CEU 대학교 및 우루과이 ORT 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2020	이석주(스페인어79) (주)임덕화학/ (주)세림 대표이사 회장, 스테디룸 헌정식 개최
2021	스페인 세비아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2022	스페인 사라고사 대학교 및 멕시코 나야리트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2022	황한주(스페인어83) 과테말라 레바인그룹 회장, 강의실 헌정식 개최
2023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특강 개최
2023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과 콜롬비아 문화주간개최
2024	마드리드 주지사, <외대생과의 만남 (Encuentro entre Madrid y HUFS)>개최
2025	故김이배 교수님 회고전
2025	권순한(스페인어63) (주)소이상사 회장, 강의실 헌정식 개최
2025	스페인어권 영화제<기억, 정체성 그리고 치유> 개최
2025	스페인어과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데이 개최

1954

•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설

* 1954년 개교 당시



종로 2가 영보빌딩 임시교사 모습



교내 식당모습, 대학 합격자 발표



미네르바 동산 모습

1955

• 스페인어과 창설

1959

• 스페인어과 1기 졸업생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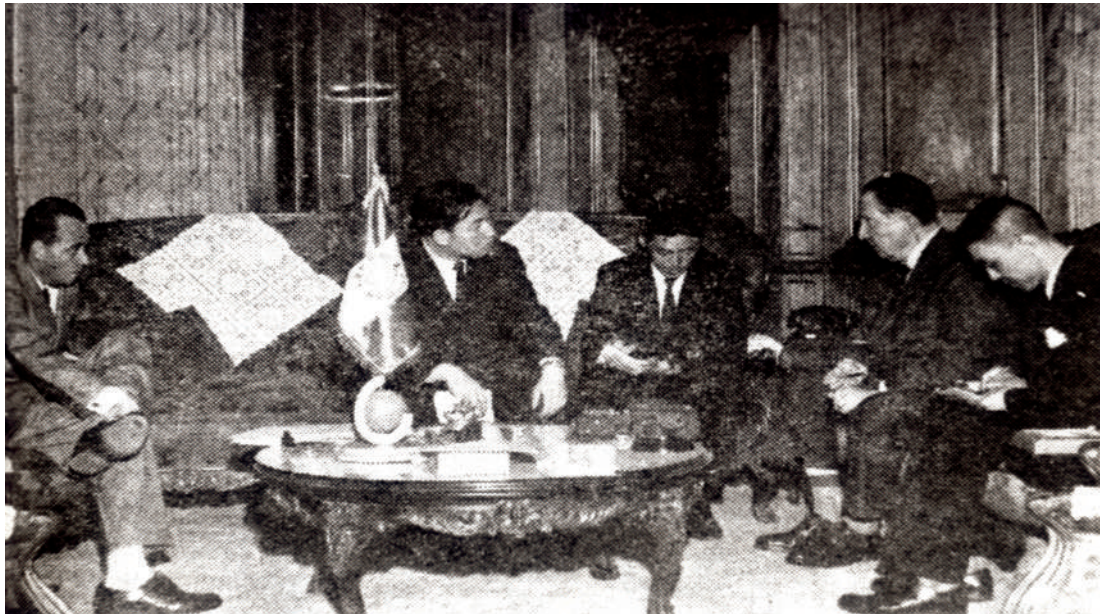
• 전국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무료강좌 개최



1960년 12월 27일 동아일보 기사 : 외국어 특수 대학 국내 유일 서반어과

1961

• 과테말라 대통령 방문



1961년 6월 1일 과테말라 대통령 방문 당시 모습



1961년 11월 27일 중남미 문화연구회 주최 서반어연극 공연



1961년 서반어과 3회 졸업생 배출



1965

- 멕시코 국립대학총장 Igancio Chávez 명예문학박사학위 수여식
- 멕시코 국립대학교, 콜롬비아 아메리카 대학교, 코스타리카 대학교, 엘살바도르 대학교, 과테말라 산 카를로스 대학교와 교육교류협정 체결



1965년 9월 8일 멕시코 국립대학교와 문화 교류 협정 체결 당시 모습



1966

- 개교 12주년 기념 서반아 연극 '싫증난 아가씨' 공연
-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Complutense)와 교육교류협정 체결



1966년 4월 22일 개교 12주년 기념행사에서 서반아 연극 '싫증난 아가씨' 공연 모습

1970

- 엘살바도르공화국 외무장관 명예문학박사학위 수여식



1970년 4월 24일 엘살바도르 외무장관 명예문학박사학위 수여식



1970년 13회 졸업식 사진



- 중남미 문제 연구소 설립

1973

- 세계민속예술제전 스페인어과 공연

1974



1974년 세계 민속 예술제 서반아어과 공연 모습

1977

- 과테말라 외상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 스페인 대사 방문 도서 기증식



1977년 3월 25일 과테말라 외상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모습



1977년 6월 25일 스페인 대사 방문 및 도서 기증식 모습

1978

- 콜롬비아 대사 방문 및 각 과대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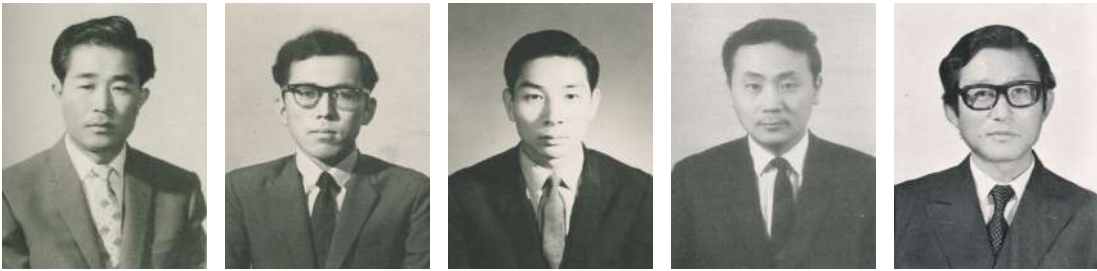


1978년 12월 5일 콜롬비아 대사와 과대표들과의 만남

1979

-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스페인어과 신설

서반아어어과 초대 교수진 사진



김이배

장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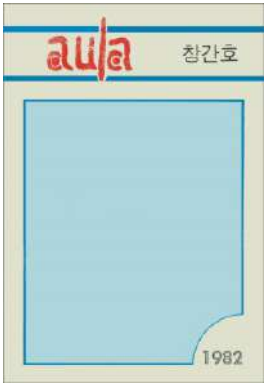
우덕룡

조용국

김현창

- 서어서문학회 창립

- 스페인어과 학술지(AULA) 창간
-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우또노마 대학교와 교육교류협정 체결
- 주한 콜롬비아 대사 명예정치학박사학위 수여식
-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 방문 강연



1982년 아울라 학술지 창간호

1981

1982



1982년 주한 콜롬비아 대사 명예정치학박사학위 수여식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 방문 강연 모습

-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우또노마 대학 총장 루이스 가리바이 구띠에레스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식



1983년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학 총장 명예박사 수여식 모습

1983

1984

-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아우또노마 총장 본교 방문 및 멕시코 연구소 개소식
- 칠레대학과의 교육교류 협정



3월 23일 서반아어과 신입생 환영회 홍보 포스터



6월28일~29일 과달라하라대 아우또노마 총장 본교 방문 및 멕시코 연구소 개소식 장면



7월 30일 칠레 대학과의 교육 교류 협정 체결식 모습

1985

- 스페인 라미로 페레스 마우라 데 에레라 대사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식
- 코스타리카 대사 도서 증정식
- 콜롬비아 대사 도서 증정식 및 특강
- 콜롬비아 외상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 스페인국왕 훈장수여식



3월 11일 김이배 교수, 우덕룡 교수 훈장 수여식 모습



3월 20일 코스타리카 대사 도서 기증식 모습



4월 16일 콜롬비아대사 특강 중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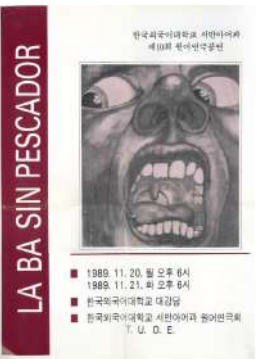
9월 18일 콜롬비아 외상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모습



1985년 서반아어과 서어성경연구반 (La Luz) 소식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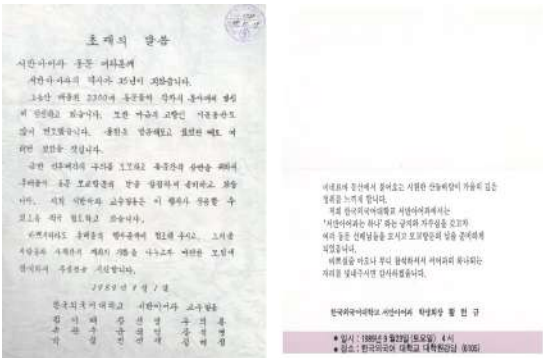


1986년 8월 25일 서어서문학회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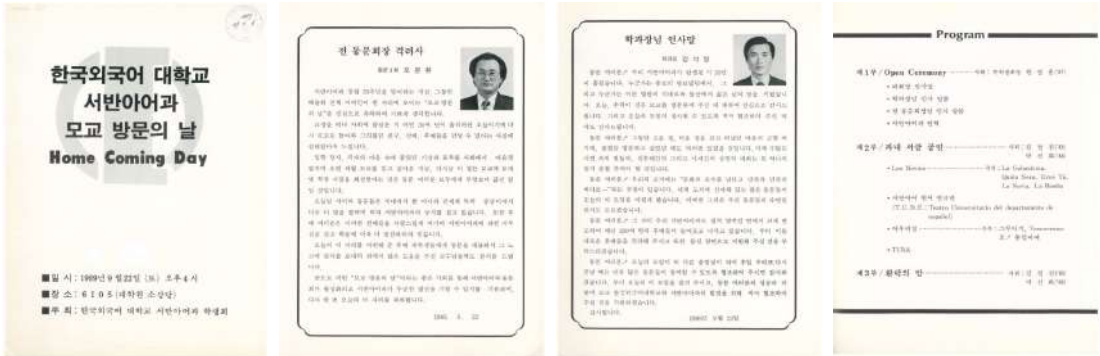


서반아어어과 원어연구 공연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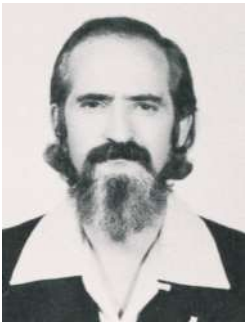


모교 방문의 날 초대장



모교 방문의 날 팸플릿

서반아어과 초대 원어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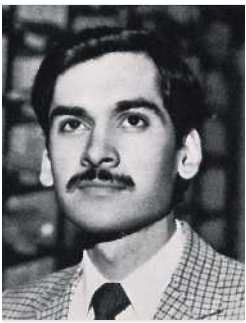
Enrique



Carranza Romero



Collantes Porras



Fernando Torres



Carlos Rudio López



Santiago de Miguel López



Wimer Alfonso



• 페루공화국 대통령 알베르토 후지모리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식

• 김흥배 박사 스페인 정부 훈장 수여

• 서반아어과 40주년

• 스페인 까를로스 살디바르 대사 방문



스페인 까를로스 살디바르 대사 강연 모습

• 콜롬비아 공화국 에르네스토 삼베르 비사노 대통령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

• 멕시코대사 방문 및 단체협약체결 멕시코 대학생단 방문



5월 13일 멕시코 대사 방문



6월 20일 멕시코 대학생단 서반아어과 방문 당시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모습

1993

1994

1995

1996

2002

- 콜롬비아 공화국 외교장관 까를리나 바르꼬 - 이삭슨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



4월 24일 스페인 대사 초청 특강



11월 12일 콜롬비아 공화국 외교장관 까를리나 바르꼬-이삭슨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식 모습

2004

- 서반아어과에서 스페인어과로 명칭 변경

2006

- 스페인어과 박철 교수 제 8대 한국외대 총장 취임
- 엘살바도르 공화국 대통령 엘리아스 안토니오 사가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



2월 28일 8대 박철 교수 8대 총장 취임식 모습



10월 25일 엘살바도르 공화국 대통령 엘리아스 안토니오 사가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식

2008

- 스페인어문학회 25주년 총회 개최
-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총장 방문
- 과테말라 부통령 초청 특강
- 한·스페인 환경연구소 창립 총회
- 스페인어과 발전기금 전달



스페인 살라망카대학교 총장 방문 (1월 22일)



과테말라 부통령 초청 특강 장면 (1월 29일)



한·스페인 환경 연구소 창립총회 기념사진 (7월 15일)



스페인어과 발전기금 전달식 기념사진 (10월 25일)

- 스페인어과 박재진 동문 발전기금 전달식
- 과테말라, 멕시코, 도미니카 대사 방문
- 스페인어과 총동문회 장학금 전달식
- 스페인 대사 Juan Leña 초청 강연



스페인어과 박재진 동문발전 기금전달식 (5월 3일)



스페인어과 총동문회 장학금전달식, 장학생들과 함께 (5월 28일)

- 박철 총장, 제 9대 한국외대 총장 연임
- 박철 총장, 스페인 정부 최고 훈장인 까를로스 3세 십자훈장 서훈



스페인어과 박철 교수, 제 9대 한국외대 총장 취임 (2월 23일)

2009

2010



박철 총장, “까를로스 3세 십자훈장” 서훈 기념사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철 총장

201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국외대 연설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 한국외대 연설 모습

2013

- 스페인어의 날(Día de la Lengua Española) 행사
-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쿠바 호세마르티 문화원 : MOU 체결 및 Club Martiano Coreano 창단식



스페인어의 날 행사 장면 (7월 2일)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쿠바 호세마르티 문화원 : MOU 체결 및 Club Martiano Coreano 창단식 기념사진

- 세르반테스 문화원 아울라 개설
- 스페인어과 박희권 주 페루대사 초청특강 : 글로벌 시대의 성공 전략
- 주한 아르헨티나대사 특강
- 스페인어과 3개국 합작 영화제
- 스페인어과 예술제 개최



세르반테스 문화원 아울라 개설 커팅식 모습 (2월 18일)



스페인어과 예술제 개최 - 노비오스 공연 모습 (11월 20일)

2014

- 전영욱 대사 특강
- 2015 스페인어과 창립 60주년 기념식



스페인어과 전영욱 대사 특강 (4월 1일)



스페인어과 창립 60주년 기념사진

2015

- 이사벨 데 세인트 말로(Isabel de Saint Malo) 파나마 부통령 초청 특강



이사벨 데 세인트 말로(Isabel de Saint Malo) 파나마 부통령 초청 특강 (8월 29일)

2017

2018

- 오스카 에레라 길버트(Óscar Herrera Gilbert) 주한 에콰도르 대사 초청 콜로키움
- 에르베르트 메네세스 코로나도(Herbert E. Meneses Coronado) 주한 과테말라 대사 초청 콜로키움



주한 에콰도르 대사 초청 콜로키움 기념사진 (11월 22일)



주한 과테말라 대사 초청 콜로키움 기념사진 (11월 28일)

2019

- 장인탁 강의실 헌정식
- 로돌포 솔라노 기로스(Rodolfo Solano Quirós)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초청 콜로키움
-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Juan Ignacio Morro) 주한 스페인 대사 초청 콜로키움



장인탁 강의실 헌정식 기념사진 (6월 4일)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초청 콜로키움 기념사진 (4월 29일)



주한 스페인 대사 초청 콜로키움 기념사진 (5월 14일)

2020

- 이석주(스페인어79) (주)임덕화학/ (주)세림 대표이사 회장, 스테디룸 헌정식 개최



스테디룸 헌정식 기념사진

2021

- 스페인 세비야대학교(Universidad de Sevilla)와 교류협정 체결



세비아대학교와의 교류 협정서

2022

• 황한주(스페인어83) 과테말라 레바인그룹 회장, 강의실 헌정식 개최



강의실 헌정식 기념사진

2023

•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특강 개최
•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공동 콜롬비아 문화주간개최



아르헨티나 대사관 특강 기념사진

• 콜롬비아 문화주간 개최 기념사진



• 마드리드 주지사, <외대생과의 만남 (Encuentro entre Madrid y HUFS)> 개최



2024

2025

- 권순한(스페인어63) (주)소이상사 회장, 강의실 헌정식 개최
- 스페인어권 영화제<기억, 정체성 그리고 치유> 개최
- 故 김이배 교수님 회고전
- 스페인어과 창립 70주년 경축행사 개최



강의실 헌정식 기념사진



스페인어권 영화제 기념사진



70주년 경축행사 기념사진



Isla de Margarita - 마르가리타 섬

La isla de “Margarita” es conocida como la “Perla” del Caribe, pertenece al estado insular de Nueva Esparta de Venezuela. Su capital es La Asunción y su ciudad más poblada es Porlamar. Es un archipiélago conformado por tres islas en el Mar Caribe, la Isla de Margarita, la Isla de Coche y la Isla de Cubagua. Es la hermana en la distancia de la isla de “Jeju” en la República de Corea.

마르가리타섬은 ‘카리브의 진주’로 불리며, 베네수엘라의 누에바 에스파르타 주(州)에 속한다. 주도의 소재지는 라 아순시온(La Asunción)이며, 포를라마르는 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이 지역은 마르가리타섬, 코체섬, 쿠바구아섬의 세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카리브 해 북부에 위치한다.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다양한 면에서 대한민국의 제주도와 유사하여, ‘제주도의 멀리 떨어진 자매섬’으로 불린다.



Cascada El Ángel - 앙헬 폭포

De la selva venezolana emergen los tepuyes como las formaciones geológicas más antiguas del Planeta, y en una de estas mágicas montañas está el Salto Ángel (en pemón: Kerepakupai vená que significa «salto del lugar más profundo») que es la cascada más alta del mundo y la cascada de agua ininterrumpida más alta del mundo, con una altura de 979 m (1987 m de caída ininterrumpida), la cifra de altura, 979 m (3212 pies). Originada en el Auyantepuy, el Salto Ángel cuenta con 4 caídas de agua, 2 permanentes y 2 no permanentes.

베네수엘라의 열림 속에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지형 중 하나인 테푸이(Tepuy)가 솟아 있으며, 대면처럼 솟아있는 테푸이를 하나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헬 폭포가 자리하고 있다. 현지 페몬족의 언어로는 “케레파쿠파이 베나”라 부르며, “가장 깊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뜻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연속 낙차 폭포가 구간을 놓아도 800미터에 달한다. 전체 높이는 979미터에 이르며, 아우안테푸이산에서 발원한다. 폭포는 총 네 단계의 낙수구간으로 구성되며, 이 중 두 개는 연중 지속적인 수류, 나머지 두 개는 계절에 따라 건조되는 비영구적 수류이다.



Parque Nacional Los Médanos de Coro - 로스 메다노스 데 코로 국립공원

El Parque Nacional Los Médanos de Coro comprende las dunas de arenas doradas más hermosas sobre el Planeta, con arenas suaves y secas que son consecuencia de la erosión eólica sobre las rocas y que se desplazan continuamente cambiando de forma. Dado que están en continuo movimiento, por ello también han recibido el nombre de arenas nómadas del desierto venezolano. Ir a conocerlas es una experiencia inolvidable, además de conducir por el istmo de la Península de Paraguaná y probar la gastronomía local basada en todo en torno al chivo (caprinos) y delicias del mar.

로스 메다노스 데 코로 국립공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빛 모래언덕 지대 중 하나로, 바람의 힘식 작용으로 생겨난 건조하고 부드러운 모래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이러한 모래는 경암층이 이동하여 그 행태를 바꾸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유목민 모래 사막’으로도 불린다. 또한 파라과나 반도의 지열을 따라 이동하여 현재의 열소구가 보리와 해산물 요리를 맛보는 깊은 잊을 수 없는 경험에 불 지어다.



Playa El Yaque - 엘 야케 해변

La Playa El Yaque es el nombre de una famosa playa en la isla de Margarita conocida internacionalmente como uno de los mejores lugares en el mundo con condiciones ideales para la práctica del windsurf y el kitesurf, que atrae a aficionados de todo el mundo, con el privilegio de contar con un clima placentero y cálido todos los días del año por no haber cambios de estaciones en Venezuela. La playa posee una variedad de hoteles, tiendas y restaurantes cerca de la playa, con una amplia gama de instalaciones y alquiler de los equipos deportivos. El Yaque está entre las playas top de Venezuela para esta práctica deportiva, junto con el Archipiélago Los Roques, y Adicora en el estado Falcón.

엘 야케 해변(Playa El Yaque)은 마르가리타섬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중 하나로, 윈드서핑(windsurf)과 카이트서핑(kitesurf)을 즐기기에 최상의 조건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베네수엘라에는 뚜렷한 계절 변화가 없어, 일 년 내내 따뜻하고 쾌적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기후 덕분에 전 세계 수상 스포츠 애호가들이 이곳을 찾는다. 해변 주변에는 다양한 호텔, 상점, 식당이 자리하고 있고, 각종 편의시설과 스포츠 장비 대여 서비스도 잘 갖추어져 있다.



Parque Nacional Canaima - 카나이마 국립공원

El Parque Nacional Canaima está ubicado en el Estado Bolívar, Venezuela. Es un espacio natural protegido, al ser declarado Parque Nacional el 12 de junio de 1962 y Patrimonio de la Humanidad por la Unesco en 1994, que se extiende sobre un área de más de 30.000 km² (similar a la extensión territorial de Bélgica), hasta la frontera con Brasil y el territorio del Esequibo venezolano. Es la contribución más importante de Venezuela con la humanidad al preservar, no solo las formaciones geológicas más antiguas del Planeta y los ecosistemas, sino también por los beneficios ambientales de la selva húmeda tropical.

카나이마 국립공원은 볼리바르주에 위치한 자연보호구역으로, 1962년 6월 12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9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공원의 면적은 약 3만 제곱킬로미터로, 벨기에의 국토 면적과 거의 비슷하며, 남북으로는 브라질 국경과 베네수엘라령 에세키보(Esequeibo) 지역까지 이어진다. 카나이마 국립공원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지질 구조의 다양한 생태계를 보존할 뿐 아니라, 절대 우림의 환경적 가치와 생태적 미점을 보호함으로써 인류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노력을 보여준다.



역대 학과장

연번	성명	전공분야	재임기간
1	우덕룡	스페인어학	1978. 11. 25. ~ 1983. 09. 23.
2	조용국	스페인어학	1983. 09. 24. ~ 1984. 12. 17.
3	우덕룡	스페인어학	1984. 12. 18. ~ 1985. 12. 31.
4	윤석영	스페인어학	1986. 01. 01. ~ 1987. 12. 21.
5	강석영	중남미정치경제학	1987. 12. 22. ~ 1990. 02. 27.
6	손관수	중남미문학	1990. 02. 28. ~ 1991. 07. 14.
7	박철	스페인문학	1991. 07. 15. ~ 1994. 07. 31.
8	민선재	스페인어학	1994. 08. 01. ~ 1996. 06. 30.
9	정혜정	스페인어학	1996. 07. 01. ~ 1998. 08. 31.
10	정경원	중남미문학	1998. 09. 01. ~ 2000. 02. 29.
11	손관수	중남미문학	2000. 03. 01. ~ 2000. 07. 31.
12	정혜정	스페인어학	2000. 08. 01. ~ 2002. 07. 31.
13	윤석영	스페인어학	2002. 08. 01. ~ 2003. 08. 25.
14	정경원	중남미문학	2003. 08. 26. ~ 2005. 07. 31.
15	전기순	스페인문학	2005. 08. 01. ~ 2007. 07. 31.
16	김경희	스페인어학	2007. 08. 01. ~ 2009. 07. 31.
17	문남권	국제관계학	2009. 08. 01. ~ 2011. 07. 31.
18	나송주	스페인문학	2011. 08. 01. ~ 2013. 07. 31.
19	김경희	스페인어학	2013. 08. 01. ~ 2015. 07. 31.
20	문남권	국제관계학	2015. 08. 01. ~ 2017. 07. 31.
21	나송주	스페인문학	2017. 08. 01. ~ 2019. 07. 31.
22	김경희	스페인어학	2019. 08. 01. ~ 2021. 07. 31.
23	문남권	국제관계학	2021. 08. 01. ~ 2022. 07. 31.
24	송예림	스페인어교육	2022. 08. 01. ~ 2024. 01. 31.
25	나송주	스페인문학	2024. 02. 01. ~ 2025. 01. 31.
26	김경희	스페인어학	2025. 02. 01. ~ 2026. 01. 31.

역대 퇴임 교수진

성명	재직기간	명예교수 임용일
김이배	1955. 03. 01. ~ 1967. 02. 28./ 1973. 03. 01. ~ 1994. 08. 31.	1994. 09. 01.
장선영	1964. 03. 01. ~ 2002. 02. 28.	-
우덕룡	1967. 03. 01. ~ 2002. 02. 28.	2002. 03. 01.
조용국	1967. 09. 01. ~ 1985. 02. 15.	-
김현창	1972. 03. 01. ~ 1984. 10. 31.	-
손관수	1980. 03. 01. ~ 2007. 02. 28.	2004. 09. 01.
강석영	1981. 03. 01. ~ 2007. 02. 28.	2007. 03. 01.
윤석영	1983. 08. 01. ~ 2006. 02. 28.	2006. 03. 01.
박철	1985. 09. 01. ~ 2016. 08. 31.	2016. 09. 01.
민선재	1983. 03. 01. ~ 2017. 08. 31.	2017. 09. 01.
정혜정	1982. 03. 01. ~ 2021. 02. 28.	2021. 03. 01.
정경원	1994. 03. 01. ~ 2021. 02. 28.	2021. 03. 01.
전기순	2004. 03. 01. ~ 2022. 02. 28.	2022. 03. 01.

현직 교수진

성명	직급	재직기간
김경희	교수	2007. 03. 01. ~ 현재
문남권	교수	2008. 09. 01. ~ 현재
나송주	교수	2010. 03. 01. ~ 현재
송예림	조교수	2022. 03. 01. ~ 현재
신정환	교수	2003. 03. 01. ~ 현재
이강국	교수	2003. 03. 01. ~ 현재
전용갑	교수	2007. 03. 01. ~ 현재
김준한	교수	2009. 03. 01. ~ 현재
이만희	교수	2010. 09. 01. ~ 현재

역대 원어민 교수진

성명	출신대학	재직연도
José CH López		1971 ~ 1975
Mrs. Cocimano		1972
Pedemonte		1974 ~ 1976
Eduondo		1975
Manuel		1977
Enrique		1978 ~ 1979
Sánchez López		1978
Katia De Álvarez		1981
M. Pilar Pérez, Valero		1981
Amparo Baquedano Viscarret		1981
Francisco J. Carranza		1981~1983, 1985~1992, 1994, 1997~2006
Wimer, Alfonso	Univ. of St. Marice	1981~1983, 1985~1988
Collantes E.P. Porras	Univ. Complutense de Madrid	1982 ~ 1983
Santiago de Miguel López	Univ. Complutense de Mardid	1985 ~ 1989
Fernando Torres de la Torre	Univ. Autónoma de Guadalajara	1985 ~ 1989
Carlos Rubio López	Univ. of Burkluy	1986 ~ 1987
Gómez Rojas Eva María	Univ. Complutense de Madrid	1988 ~ 1989
Armando Eduardo Ramírez Ramírez	Univ.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1989 ~ 1994, 1997 ~ 2003
Petra de Llanos Isidoro	Univ. Central de Barcelona	1990 ~ 1994
Fernando Recaj Navarro	Univ. de Salamanca	1990, 2009
Juan Manuel Cuartas Restrepo	Instituto Caro y Cuervo	1991 ~ 1994
Moises Stankowich	Univ. Central de Barcelona	1994, 1997 ~
Rosa Rivas	Instituto Anglo Mexicano de Cultura	1997
Margarita Lanuza	Univ. de Lleida	1997 ~ 1998
Medina Andrés Leticia	Univ. Autónoma de Madrid	1998
Castro Díaz Elena Elvira	Univ. de Coruna	1999 ~ 2002
Rubinat Parellada Ramón	Univ. de Lerida	1999 ~ 2001
Pacheco May Juan Antonio	Univ.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1999 ~ 2002
Riado Amorós Ana Belén	Univ. de Lleida	2002 ~ 2004
Jiménez Fernández Alfredo	Univ. Lumier de Lyon	2003 ~ 2005
Bainat Ortega Miguel	Univ. de Leida	2003 ~ 2004
Laura Serrano García	Univ. de Barcelona	2005 ~ 2008
Victor Camprubi Telo	Univ. de Barcelona	2005 ~ 2006
Philippe Seguin Damian	Univ. Nacional Autonomia de Mexico	2005 ~ 2011
Elena Alicia Magana Franco		2006 ~ 2007, 2009 ~ 2012
Víctor Hugo Cortés López	Univ. de Colima	2006 ~ 2007, 2009 ~ 2012
David Ángel Gonzalez Amuchastegui	Univ. Complutense de Madrid	2007
Josep Antoni Clement Rovira	Univ. Autónoma de Barcelona	2009 ~ 2010
Javier Cortines Fernández	Univ. Complutense de Madrid	2009 ~ 2010
María del Socorro Gutiérrez Martínez	Free Univ. of Berlin	2010
María Victoria Soule	Univ. Complutense de Madrid	2011 ~ 2015
Gerardo Gómez Michel	Univ, of Pittsburg	2011 ~ 2012
Daniel Barajas de Santiago	Univ. Complutense de Madrid	2011 ~ 2020
Oriol Miró Martí	Univ. de Barceolona	2012 ~ 2013
Juan Lucas Onieva López	Univ. de Málaga	2013
Adriana Martínez	English&Foreign Language Univ.	2013 ~ 2017
Francisco Romo Simón	Universidad de Barcelona	2014 ~ 2018
María Teresa Martínez García	University of Kansas	2017 ~ 2021
Óscar Abenójar Sanjuán	Universidad de Alcalá	2019 ~ 2021

성명	출신대학	재직연도
Carlos Fernández González	Univ. de Santiago de Compostela	2011 ~
Idalia Patricia Espinosa Leal	Pablo de Olavide University Sevilla	2015 ~
Francisco Gómez Martos	Johns Hopkins University	2021 ~
Noelia Núñez Preza	University of Zaragoza	2021 ~

현직 원어민 교수진



@visitargentina

Catamarca: Antofagasta de la Sierra – 안토파가스타 데 라 씨에라

Escenario de desiertos, salares y cielos estrellados que revelan la imponente y silenciosa belleza del noroeste argentino. 황량한 대지와 소금 사막 하늘에 흩뿌려진 별빛이 북서쪽 하늘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비춘다.



Embajada de la
República Argentina
República de Corea



@visitargentina

Buenos Aires : Avenida 9 de Julio – 7월 9일 대로

Eje icónico de la capital argentina, una avenida monumental donde el Obelisco marca el pulso de la ciudad.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징적인 대로로 가운데 오벨리스크가 도시의 활기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Embajada de la
República Argentina
República de Corea



@visitargentina

Mendoza: Viñedo – 포도밭

Cuna del Malbec y capital del vino argentino, con viñedos que se extienden al pie de los Andes nevados. 눈덮인 안데스 산맥 자락에 펼쳐진 엔도사는 아르헨티나 말벵 와인 향기를 물씬 풍긴다.



Embajada de la
República Argentina
República de Corea



@visitargentina

Misiones: Cataratas de Iguazú – 이과수 폭포

Maravilla natural de impacto sobrecogedor, donde cientos de saltos de agua se desploman en medio de la selva misionera. 미시오네스의 울림은 가운데서 떨어지는 수많은 물줄기가 자연의 장엄함을 고스란히 뽐낸다.



Embajada de la
República Argentina
República de Corea



@visitargentina

Santa Cruz: Glaciar Perito Moreno – 페리토 모레노 빙하

Gigante de hielo en perpetuo movimiento, cuya imponente belleza domina el Parque Nacional Los Glaciares. 빙하의 웅장함이 움직이는 거대한 빙동조각은 호스공라시아데스국립공원의 최고로 골라지는 풍경이다.



Embajada de la
República Argentina
República de Corea

스페인어권 교류협정
체결 대학 현황
(2025.07.15. 기준)

순번	국가	대학명(영문)	대학명(국문)	체결일자
1	멕시코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19650908
2	콜롬비아	University of America	아메리카 대학교	19650908
3	코스타리카	University of Costa Rica	코스타리카대학교	19651020
4	엘살바도르	University of El Salvador	엘 살바도르 대학교	19651022
5	과테말라	University of San Carlos of Guatemala	산 까를로스 대학교	19651027
6	스페인	Complutense University of Madrid	마드리드콤플루텐세대학교	19660623
7	멕시코	Autonomous University of Guadalajara	과달라하라 아우토노마 대학교	19820727
8	칠레	University of Chile	국립칠레대학교	19840730
9	콜롬비아	Antonio Narino University	안토니오 나리노 대학교	19901224
10	멕시코	Intercontinental University	인테르콘띠넨탈 대학교	19941215
11	스페인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19990906
12	아르헨티나	University of Belgrano	벨그라노대학교	20010323
13	파나마	University of Panama	파나마 대학교	20010723
14	스페인	University of Salamanca	살라망카 대학교	20030716
15	멕시코	University of Colima	콜리마대학교	20040630
16	도미니카연방	Autonomous University of Santo Domingo	산토도밍고국립대학교	20060630
17	코스타리카	University for Peace	유엔평화대학	20070413
18	코스타리카	National University of Costa Rica	코스타리카네셔널대학교	20080118
19	코스타리카	Latina University of Costa Rica	라티나대학교	20080118
20	아르헨티나	University of Buenos Aires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20080919
21	페루	National University of San Marcos	산마르코스대학교	20090227
22	콜롬비아	Sergio Arboleda University	세르히오알보레다대학교	20090409
23	칠레	Diego Portales University	디에고포르탈레스대학교	20091101
24	스페인	University of Las Palmas de Gran Canaria	라스팔마스대학교	20091111
25	멕시코	Monterrey Institute of Technology	몬테레이공과대학교	20091229
26	스페인	University of Malaga	말라가대학교	20100125
27	멕시코	La Salle University-Mexico City	라사에대학교	20100222
28	멕시코	Anahuac University	아나우악대학교	20100318
29	스페인	University of Lleida	에이다대학교	20100401
30	스페인	Pompeu Fabra University	폼페우파브라대학교	20100901
31	콜롬비아	University of Tolima	톨리마대학교	20101005
32	스페인	University of Cordoba	코르도바대학교	20101129
33	멕시코	The College of Mexico	멕시코국립대학원대학교	20111007
34	멕시코	Mexico Autonomous Institute of Technology	멕시코자치기술대학교	20120217
35	스페인	University of Santiago de Compostela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대학교	20120326
36	스페인	University of Alcala	알칼라대학교	20120423
37	콜롬비아	Pedagogical and Technological University of Colombia	콜롬비아기술사범대학교	20120605
38	스페인	University of Valladolid	바야돌리드대학교	20120614
39	콜롬비아	Pontifical Xavierian University	하베리야나대학교	20120815
40	콜롬비아	EAFIT University	에아핏대학교	20120924
41	스페인	Antonio de Nebrija University	안토니오데네브리하대학교	20121203
42	멕시코	Popular Autonomous University of Puebla State	푸에블라주립자치대학교	20121218
43	콜롬비아	ICESI University	ICESI 대학교	20121218
44	스페인	Autonomous University of Madrid	마드리드자치대학교	20130115
45	온두라스	Francisco Morazan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온두라스국립교육대학교	20130425
46	우루과이	University of the Republic	우루과이공화국대학교	20130509
47	파라과이	Instituto Superior de Educacion "Dr. Raul Pena"	라울페냐교육대학교	20130710
48	멕시코	The Center for Technical and Higher Education (CETYS University)	CETYS 대학교	20130821
49	아르헨티나	Torcuato Di Tella University	토르쿠아토디텔라대학교	20130821
50	멕시코	Autonomous University of Nuevo Leon	누에보레온자치대학교	20130822

순번	국가	대학명(영문)	대학명(국문)	체결일자
51	멕시코	La Asociación Mexicana de Ciencias Políticas	멕시코정치과학학회	20130826
52	스페인	University of Castilla-La Mancha	까스티야라만차대학교	20131108
53	쿠바	University of Havana	아바나대학교	20140214
54	스페인	University Camilo José Cela	까밀로호세셀라대학교	20140407
55	과테말라	Rafael Landivar University	라파엘란디바대학교	20140508
56	스페인	University of La Rioja	라 리오하대학교	20140516
57	콜롬비아	National University of Colombia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20140718
58	스페인	University of Jaen	하엔대학교	20141106
59	멕시코	Autonomous University of the State of Mexico	멕시코주립자치대학교	20150417
60	볼리비아	Franz Tamayo Private University	프란츠타마요사립대학교	20151218
61	우루과이	Catholic University of Uruguay	우루과이카톨릭대학교	20160902
62	페루	University of Lima	리마대학교	20170322
63	멕시코	Madero University	마데로 대학교	20170909
64	스페인	University of Navarra	나바라 대학교	20170919
65	칠레	University of Talca	탈카 대학교	20170926
66	볼리비아	University of San Simón	산시몬 대학교	20171130
67	멕시코	Juarez University of the State of Durango	두랑고후아레스대학교	20180115
68	스페인	University of the Basque Country	바스크대학교	20180115
69	스페인	Catholic University of Murcia	산 안토니오데무르시아 가톨릭대학교	20180904
70	콜롬비아	Universidad del Rosario	로사리오 대학교	20181130
71	칠레	Central University of Chile	칠레 센트랄 대학교	20190315
72	에콰도르	Universidad Casa Grande	카사 그란데 대학교	20191206
73	스페인	CEU San Pablo University	CEU 산 파블로 대학교	20200123
74	우루과이	Universidad ORT Uruguay	ORT 우루과이 대학교	20200327
75	스페인	CESINE Design & Business School	CESINE 디자인 & 경영대학	20210429
76	스페인	University of Seville	세비아 대학교	20210927
77	멕시코	Autonomous University of Nayarit	나야릿자치대학교	20220613
78	스페인	University of Zaragoza	사라고사대학교	20220706
79	콜롬비아	Metropolitan Institute of Technology	메데진시립기술대학교	20230612

교환 - 파견학생 현황 (5년)

국가	대학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합계
		7+1	교환	자비	7+1	교환	자비	7+1	교환	자비	7+1	교환	자비	7+1	교환	자비	
스페인	University of Granada	1															
	University of Malaga	2					1	12			9			9			33
	University of Valladolid		1					2			4			6			13
	University of Salamanca		2			1		2	5		2	9		1	2		24
	Antonio de Nebrija University		1				1	3			1				4		10
	University of Las Palmas							1									1
	Charles III University of Madrid							2			2						4
	University of Alicante							15			4	2		3			24
	University of Alcala								1			2			2		5
	University of Navarra								1			1					2
	Pompeu Fabra University								3			3			3		9
	University of the Basque Country											1					1
	University of Cordoba											4		1			5
	Autonomous University of Madrid											2			1		3
멕시코	La Salle University		4						4			7			9		24
	University of Colima					1											1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1			1					2
페루	University of Lima		2														2

재학생 현황

년도	재학생						휴학생						재적학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2023	417	90	153	31	264	59	114	33	57	16	57	17	531	123	210	47	321	76
2024	379	81	122	31	257	50	145	32	77	16	68	16	524	113	199	47	325	66
2025	354	80	105	36	249	44	153	33	81	16	72	17	507	113	186	52	321	61

졸업생 현황
(2025년 2월 졸업자까지)

연도	남		여		총합계
1959	14		0		14
1960	26		2		28
1961	24		3		27
1962	20		2		22
1963	48		2		50
1964	45		5		50
1965	58		8		66
1966	50		6		56
1967	32		11		43
1968	22		9		31
1969	25		7		32
1970	31		4		35
1971	24		9		33
1972	33		9		42
1973	31		7		38
1974	41		7		48
1975	34		7		41
1976	44		7		51
1977	53		7		60
1978	60		15		75
1979	71		6		77
1980	71		7		78
1981	79		6		85
1982	83		3		86
1983	74		7		81
1984	104		7		111
1985	98		13		111
1986	99		33		132
1987	105		52		157
1988	111		46		157
1989	98		36		134
1990	89		29		118
1991	95		57		152
1992	77		51		128

연도	남		여		총합계
1993	91		50		141
1994	77		45		122
1995	65		41		106
1996	69		41		110
1997	47		35		82
1998	46		33		79
1999	68		61		129
2000	43		54		97
2001	48		59		107
2002	45		61		106
2003	48		56		104
2004	39		59		98
2005	49		83		132
2006	44		62		106
2007	49		81		130
2008	35		61		96
2009	32		49		81
2010	30		51		81
2011	44		55		99
2012	41		62		103
2013	35		47		82
2014	33		60		93
2015	41		75		116
2016	37		73		110
2017	35		65		100
2018	47		63		110
2019	53		47		100
2020	29		67		96
2021	38		61		99
2022	28		73		101
2023	44		52		96
2024	34		50		84
2025	14		32		46

이중전공 현황
(3년)

년도	이중전공생 수	비고
2023	190명	2023. 2. 기준
2024	172명	2024. 2. 기준
2025	238명	2025. 7. 기준



Provincia de Napo - 나포 주
Ec lodge del Centro de Vida Silvestre Napo
나포 야생생물센터 생태숙소



Provincia de Cotopaxi - 코토팍시 주
Celebración del Inti Raymi, Laguna de Quilotoa
킬로토아 호수에서 열린 인티 라야미 축제



Provincia de Guayas - 구아야스 주
Parque Seminario
세미나리오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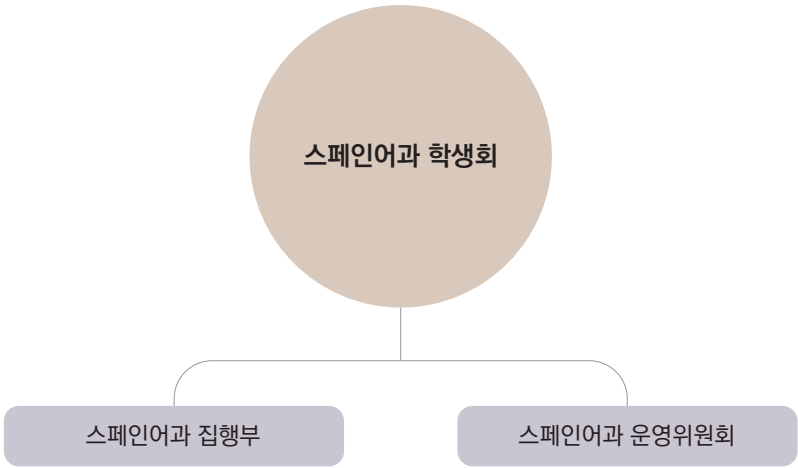


Valle del Cocora - 코코라 계곡
En las montañas del municipio de Salento, las altas palmas de cera emergen entre la neblina en el verde paisaje del Valle de Cocora, un ícono natural del Eje Cafetero colombiano.
살렌토 고지대의 코코라 계곡으로 짙은 안개 속에서 하늘 높이 솟은 왁스야자수가 푸른 산맥을 배경으로 서 있어, 콜롬비아 커피벨트의 대표적 자연 경관을 이룬다.



학생회 구조도 소개

스페인어과 학생회 및 집행부 소개



스페인어과 집행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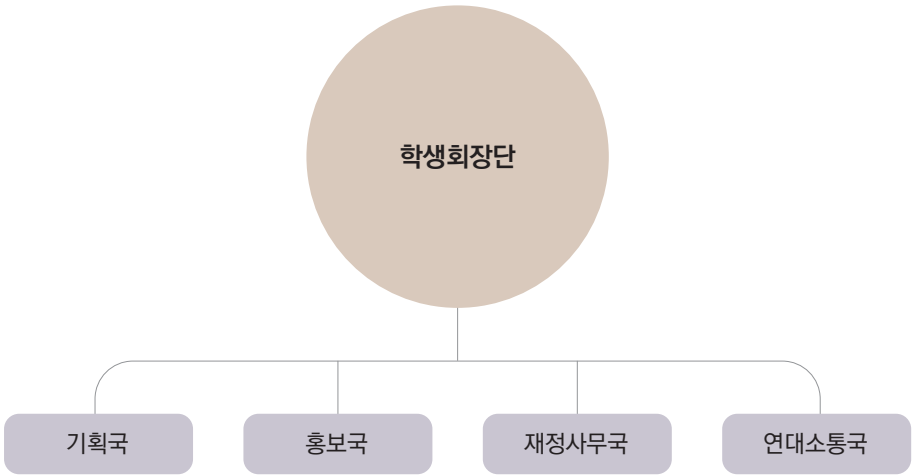
스페인어과의 최고 집행 기구로,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스페인어과 학생회의 목적을 실현합니다. 2025년 현재, 스페인어과 집행부는 기획국, 연대소통국, 재정사무국, 홍보국 총 4개의 국서로 이뤄져 있습니다.

스페인어과 운영위원회

스페인어과의 의결 기구이자 운영 기구로, 학생회장단, 학년 대표, 스페인어과 소모임 대표(동아리 패장), 감사위원장으로 구성됩니다. 스페인어과 학생 사회의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에 관한 의결 및 인준을 담당합니다.

집행부 소개

스페인어과 학생회의 모든 행사와 일들을 직접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과를 위해 봉사하고 더 나은 스페인어과 학생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4개의 국서를 두고 있습니다.



기획국
제38대 스페인어과 학생회
기획국장 **이지예**

기획국은 학과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핵심 부서로, 학우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신입생 OT의 레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시험 기간 간식 행사를 주관하고 서양어대학 문화의 날 행사에서 스페인어과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스를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이처럼 기획국은 단순한 기획, 실행을 넘어 학우들의 즐거운 학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자, 즐거운 경험과 따뜻한 추억을 선사하는 부서입니다.

연대소통국
제38대 스페인어과 학생회
연대소통국장 **윤서하**

연대소통국은 학생회에서 학우들과의 소통과 협력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동학생회와 온라인 청원함 운영을 통해 학교생활과 프로그램 관련 건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합니다. 또한 자치 언어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공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우들 간에도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강 파티, 새 학기 짝선짝후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여 학우 간 유대감을 다지고,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합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 국서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연대소통국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재정사무국
제38대 스페인어과 학생회
재정사무국장 **최수미**

재정사무국은 학생회 내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매월 사용할 금액을 미리 계획하는 예산안부터, 당기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산안까지 재정사무국이 도맡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학생회 내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의 결제 또한 재정사무국의 담당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직한 재정 사용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과내외 감사를 준비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사무국은 언제나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학생회의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회를 향한 학우분들의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홍보국
제38대 스페인어과 학생회
홍보국장 **임성재**

홍보국은 학과와 학생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회장단 또는 다른 국서들로부터 홍보물 제안을 통해 의뢰받은 홍보물을 편집 툴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이를 SNS에 게시합니다. 가독성 높은 홍보물들로 학우들께 신속,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홍보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집행부의 1년

힘차게 전진하는 스페인어과 집행부의 1년을 소개합니다!

1월

스페인어과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1월엔 제38대 스페인어과 학생회장단 선거 무산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집행부는 25학번 새내기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였습니다. 2월 달에 있을 새맛이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책자부터 축하 무대까지 밤낮없이 준비하였습니다.



2월

2월은 만남의 달이었습니다. 처음 공식적으로 새내기들을 만나는 자리인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1박 2일을 보내며 동기, 선후배 간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진행했습니다. 갓 입학한 25학번에게 학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뿐 아니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학우들 간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했습니다.



3월

‘첫 개강’이라는 설렘을 안고 입학한 새내기들과 ‘새로운 봄’을 맞이한 재학생들의 캠퍼스 라이프가 시작되는 달이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아직 동기, 선후배 간 어색할 학우들을 위해 개강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1명의 선배와 2명의 새내기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1학기 동안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깊은 친목을 쌓을 수 있는 짝선평파 프로그램 ‘La Amistad’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 앞으로 함께 전진할 스페인어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새로운 집행부원들이 모집되었습니다.



4월

4월에는 제38대 스페인어과 학생회장단 재선거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인증 이벤트를 통해 많은 투표를 독려한 결과 최종투표율 45.06%로 ‘스페인어과의 밝은 내일을 비춰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학생회 ‘ILUMINA’가 구성되었습니다. 임기 시작 후 첫 사업으로, 학생들의 중간고사를 응원하기 위해 간식 행사를 진행하였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이 모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5월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집행부는 5월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정기총회를 통해 학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했고, 새로운 학생회장단과 함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서양어대학의 문화의 날 행사와 한국외대의 꽃인 축제 ‘퀸쿠아트리아’에서 부스 운영을 하며 힘들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기, 선배들과 함께 떠난 총 MT에서는 학우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며 집행부는 보람찬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동학생회를 진행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1학기의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6월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6월, 집행부는 시험에 지친 학우들을 위해 간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맛있는 간식을 나누며 모두가 끝까지 힘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응원했습니다.



집행부의 1년

힘차게 전진하는 스페인어과 집행부의 1년을 소개합니다!

7월

방학이 시작된 7월, 집행부는 다 함께 과방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과장님과 면담을 통해 전공 수업 피드백 사업으로부터 받은 학우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과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8월에도 과방 재정비는 계속되었습니다. 학우들이 새 학기를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도록 꼼꼼히 공간을 단장했습니다. 더불어, 언어 실력 향상과 문화 교류를 위한 언어 교류 사업을 기획, 진행하였고 학생회 캠프를 함께 다녀오며 알찬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9월

9월은 돌아온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정기총회가 열려 학과의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학우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한 사물함 배정도 이루어 졌습니다.



10월에는 중간고사를 맞이하여 학업에 열중하는 학우들을 격려하기 위한 간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시에 스페인어과 70주년 기념행사의 막바지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사를 위한 자료들을 최종 점검하며 모두가 뜻깊은 축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11월에는 스페인어과를 이끌어 갈 학생회의 새로운 주역인 회장단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후보자들은 학과의 미래를 위한 포부를 밝히고, 학생들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택을 반영할 것입니다. 선거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스페인어과 학생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후련함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인 12월입니다. 기말고사 기간동안 학우들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학생회장단인 새로 출마된 학생회장단에게 인수인계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집행부들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함께한 추억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스페인어과 집행부를 하며 느낀 것들 (나에게 집행부란?)

Los Amigos _ 유민수 (25년도 회장)

‘보람참’입니다. 나 자신이 아닌 학우들을 위해 시간 내어 무언가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며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은 ‘보람참’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덕분에 보다 저의 대학 생활이 다채로워졌고 미래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스페인어과 학생 사회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길 바랍니다. ¡ÁNIMO!

- 제38대 스페인어과 학생회장 24학번 김지윤

집행부 활동은 서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집행부 활동을 시작하면 모든 게 서툴고 어려워서 마치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이 무섭겠지만, 그 안에서 몸을 맡기고 즐기다 보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제38대 스페인어과 부학생회장 24학번 홍수아

집행부 활동은 제 대학 생활의 전부입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쌓게 해줬으며, 학우들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 제37대 스페인어과 학생회장 23학번 오연재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생 사회가 돌아가는 원동력을 몸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 자치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과 70주년 역사 중 한 부분에 일조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뿌듯합니다.

- 제36대 스페인어과 학생회장 22학번 이채유

회화&친목 동아리 _ 「로스 아미고스」

Los Amigos는 1973년에 창립되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회화 및 친목 동아리입니다. 창립 이래로 아미고스는 스페인어 구사 능력 향상과 스페인어권 문화 이해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 오며, 반세기에 걸쳐 학과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Los Amigos는 스페인어로 ‘친구들’을 뜻하며, 함께 모여 스페인어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우정을 쌓아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출발한 Los Amigos는 초대 회장 68학번 방시영을 시작으로 유지원, 허빈, 이은별, 유민수 등 역대 회장단과 부원들의 노력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아리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스페인어 드라마와 영화를 감상하며 표현을 익히고, 서로 스페인어로 대화하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연습합니다. 또한 외국인 교수님을 초청한 회화 세미나를 비롯해, 원어민 친구들을 초대하여 스페인어권 사회와 문화를 직접 알아가는 시간도 가집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언어 학습을 넘어, 실제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 ‘Amigos’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후배와 동기들이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친목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홈커밍 행사를 주관하여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선후배 간의 유대와 공동체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과의 발전과 스페인어 학습의 기반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Los Amigos, para siempre!



역대 회장 명단

활동 연도	학번·이름	비고
1973	68 방시영	
1974~1981	-	불명
1982	80 이계용	
1983~1984	-	불명
1985	81 변재범	
1986	84 김경희	
1987	85 조영진	
1988	85 송의준	
1989	87 이형진	
1990	88 황민준	
1991	89 박재용	
1992	90 강상욱	
1993~1995	-	불명
1996	91 강익석	
1997	92 최필수	
1998~1999	-	불명
2000	97 손광득	
2001	96 김종락	
2002	00 양희환	
2003	00 신동빈	
2004	02 이승호	
2005	02 서태왕	
2006	02 서태왕	
2007	05 김미나(1학기) 06 도예원(2학기)	
2008	04 강문수	
2009	08 공아람솔	
2010	09 김서영	
2011	07 강민욱	
2012	08 김원모	
2013	12 윤유상	
2014	12 윤유상	
2015	14 최다솔	
2016	15 김인기	
2017	16 이희원(1학기) 16 이미현(2학기)	
2018	17 정한울	
2019	18 이주호	
2020	19 봉준오	
2021	19 박한별(1학기) 20 백지송(2학기)	
2022	21 유지원	
2023	22 허빈	
2024	23 이은별	
2025	24 신현수(1학기) 25 유민수(2학기~)	

역대 회장 명단

활동 연도	학번 이름	비고
1982~1987	-	불명
1988~1989	85 심우석	
1989~1990	88 정영준	
1990~1991	89 한정석	
1991~1992	90 양승우	
1992	91 강익석	
1992~1993	91 조재범	
1993	92 정찬도	
1993~1994	93 박찬진	
1994	93 엄효섭	
1994~1995	94 고광필	
1995~1996	95 김영록	
1996~1997	96 이상민	
1997~1998	97 도왕현	
1998~1999	98 정동현	
1999~2000	99 유웅	
2000~2001	00 정명해	
2001~2002	01 이석찬	
2002~2003	02 강영근	
2003~2004	03 최시원	
2004~2005	04 김하나	
2005~2006	05 사희원	
2006~2007	06 박상철	
2007~2008	07 김정열	
2008~2009	08 최하영	
2009~2011	09 문재중	
2011~2012	11 강세림	
2012~2013	12 고여경	
2013~2014	13 김민희	
2014~2015	14 강주은	
2015~2016	15 이혜민	
2016~2017	16 신정규	
2017~2018	17 강서현	
2018~2019	18 이지섭	
2019	19 이원석	
2020~2022	-	활동 중단
2023~2024	23 박성아	
2024~2025	23 선유민	
2025~	25 백진우	

밴드 동아리 _ 「로스 노비오스」

전진 스페인어과의 ‘Los Novios’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의 유일한 밴드 동아리로, 스페인어로 ‘연인들’을 뜻합니다.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어 친목을 나누고,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Los Novios’는 1982년에 창설되어 1998년 제1회 정기 공연을 시작으로 2018년 제19회 정기 공연까지 이어지며 스페인어과 구성원들에게 뜻깊은 무대를 선사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동안 활동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3년 2학기, 박성아(23) 패장을 시작으로 다시금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이후 선유민(23)을 거쳐 현재는 백진우(25)가 패장을 맡아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동이 재개된 이후부터 서양어대학 축제, 스페인어과 예술제, 정기 공연 등 매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학과 구성원들과 함께 호흡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4년 9월 정기 공연, 2024년 11월 스페인어과 예술제, 2025년 6월 정기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정기 공연에서, 사전예매 인원이 86명에 달했고, 공연 당일 현장 예매 인원을 포함하여 100명이 넘는 관객이 동원되어 성황리에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Los Novios는 앞으로도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스페인어과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정기 공연과 예술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대학 시절의 열정과 낭만을 노래하는 밴드가 되고자 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는 타고 밴드부와의 정기교류를 시작하여 다양한 공연과 협연을 통해 경험적, 음악적 활동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Los Novios _ 백진우 (25년도 회장)

농구 동아리 _ 「로스 토로스」

전진 스페인어과의 농구 동아리 Los Toros입니다. ‘Los Toros’는 스페인어로 ‘황소들’을 뜻합니다. 황소는 힘과 용맹함, 그리고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투지와 정열을 상징합니다. 저희 Los Toros는 그 이름에 걸맞게, 농구 코트 위에서 황소처럼 정열적이고 저돌적인 플레이를 통해 스페인어과의 에너지와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os Toros는 단순한 동아리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실력 향상과 팀워크, 그리고 구성원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정기 훈련, 친선 경기 등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며, 선후배 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팀이 되어갑니다. 치열한 경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함께 뛰는 Los Toros는, 선수 모두가 마치 한 마리의 황소처럼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Los Toros는 화기애애하고 열정적인 분위기의 동아리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모두 선수가 될 수 있으며, 코트 위에서 스페인어과의 열정과 활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함께 맘을 흘리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구에 대한 열의뿐만 아니라, 스페인어과 학생들의 단결과 도전을 상징하는 Los Toros는 앞으로도 스페인어과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코트 위를 힘차게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Pie de Perro _ 정현도 (25년도 회장)

Aula _ 이예성 (25년도 회장)

축구 동아리 _ 「삐데삐」

전진 스페인어과 축구 동아리 PDP(Pie de Perro)입니다. 스페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축구’입니다. 세계 최정상급의 기량을 자랑하는 스페인 대표팀처럼, 우리 PDP는 외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자 모인 동아리입니다.

‘Pie de Perro’는 스페인어로 ‘개발’을 뜻합니다. 일상적으로 ‘개발’은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PDP는 이름과 달리 탄탄한 실력과 조직력을 자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정기 모임 시간에는 주로 외대 운동장에서 훈련하며, 때로는 다른 학과나 다른 학교 축구 동아리와 약속을 잡아 외부 구장에서 친선 경기를 진행합니다. 또한 매년 4월 외대 월드컵, 9월 서양어대 유로컵에서 스페인어과를 대표해 출전하며 2018년·2019년·2023년 유로컵 준우승, 2024년 유로컵 우승, 그리고 가장 최근 열린 2025년 외대 월드컵에선 ‘우승’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PDP는 학년과 나이를 막론하고 활발히 교류하는 동아리입니다. 경기에서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함께 뛰며 땀을 흘리고, 응원과 준비 과정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선수와 응원단을 넘어,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와 동료애로 이어집니다. 동아리 활동이 없는 날에도 함께 어울리며 학교생활과 학업,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나누는 모습에서 PDP만의 따뜻하고 화목한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페인·중남미 지역학회 _ 「아울라」

스페인어과 스페인·중남미 지역학회인 AULA는 1981년 창립 이래, 44년간 학문적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스페인어로 ‘교실’을 뜻하는 AULA는 스페인 및 중남미 문화권에 대한 창의적 탐구와 자유로운 담론을 지향하는 학술 공동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AULA는 정치·경제·문학·사회·문화 전반의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다루며, 지금까지 총 22권의 학술지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페인어과 70주년 기념 책자 특별 기고를 통해, ‘중남미와 한국의 동반자로서 연대와 협력의 의의’를 재조명하며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홈커밍 행사에서는 각 연도의 학술지와 연구 성과물이 선배님들께 공유되어, 학술적 연결망과 세대 간 유대를 공고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현재 AULA의 정기 활동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며, 영화 감상과 더불어 작품에 담긴 중남미·스페인 각국의 지역 문화 조사, 기사문 번역과 분석 등 학술적 탐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의성 있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학회원들의 학술적 역량과 지식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AULA는 선배 초청 강연과 학술 세미나를 정례화하여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구성원 간 결속력을 더욱 견고히 다져 지속 가능한 학술 공동체로 발전할 것입니다.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DEPARTMENT
OF SPANISH
CLUB AULA
SINCE 1981
STUDYING CULTURE
OF SPAIN AND
LATIN AMERICA



역대 회장 명단

활동 연도	학번·이름	비고
1981~1983	80 이경욱	
1983~1984	81 고영일	
1984~1986	81 박승인	
1986~1989	85 전용갑	
1989~1990	85 조왕덕	
1990~1992	-	불명
1992~1993	90 문찬혁	
1993~1994	91 이소영	
1994~1995	92 김자강	
1995~1996	94 박철우	
1996~1997	95 남궁곤	
1997~1998	96 김태연(1학기) 96 이준혜(2학기)	
1998~1999	97 김재권	
1999~2000	98 송해정	
2000~2001	99 박은경	
2001~2002	00 김영백(1학기) 01 정순화(2학기)	
2002~2003	99 이상준	
2003~2004	99 이상준(1학기) 03 하동선(2학기)	
2004~2005	03 하동선(1학기) 01 오신석(2학기)	
2005~2006	01 오신석(1학기) 02 박시환(2학기)	
2006~2007	05 이장섭(1학기) 04 문영준(2학기)	
2007~2008	04 문영준(1학기) 03 하동선(2학기)	
2008~2009	07 김재현	
2009~2010	07 목상화	
2010~2011	05 이장섭	
2011~2012	07 이동훈(1학기) 05 이장섭(2학기)	
2012~2013	09 장주현(1학기) 10 정아름(2학기)	
2013~2014	09 김동준	
2014~2015	09 김동준(1학기) 13 황유리(2학기)	
2015~2016	14 송승아	
2016~2017	15 이하영	
2017~2018	16 하진욱(1학기) 16 김지애(2학기)	
2018~2019	17 김성민(1학기) 18 최문석(2학기)	
2019~2020	18 최문석	
2020~2021	19 이주은	
2021~2022	19 이주은(1학기) 20 유은찬(2학기)	
2022~2023	20 유은찬(1학기) 21 김지희(2학기)	
2023~2024	22 편도훈	
2024~2025	23 박유정	
2025~	24 이예성	



코마아구아 대성당



산타마리아 델 카르본 폭포



오모아의 일몰



푸링글라의 구불구불 시골길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총동문회

개요: 1955년 창립 이후 국내 스페인어 관련 학과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외대 스페인어과의 총동문회는 1960년대 초에 출범하였습니다. 총동문회는 선후배와 동기들이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고 학과 발전에 기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문회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연년세세 전통을 이어온 스페인어과 총동문회는 2025년 현재 8대 집행부(회장 정길화, 78학번)가 활동 중입니다

스페인어과 총동문회는 1955년 입학한 스페인어과 입학생 13명이 졸업하면서 1960년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에 김우동(외교안보연구원) 동문이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4년간 동문회를 이끌었습니다. 제 2대 회장으로 이우길 동문께서 추대되어 2년간 동문회 발전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제 3대 회장으로 소이상사 권순한(63) 회장이 추대되어 6년간 동문회를 이끌었습니다. 제 4대 회장으로 HPM 글로벌 방시영(68) 회장이 추대되어 8년간 동문회 발전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제 5대 회장으로 HA&HA 법률 사무소 하영욱(75) 회장이 추대되어 동문회를 3년간 이끌었습니다. 제 6대 회장으로 한국외대 부총장 정경원(75) 회장이 추대되어 2년간 동문회 발전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제 7대 회장으로 화인석재 이상욱(75) 회장이 추대되어 7년간 동문회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이어진 코비드 팬데믹으로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문회는 온라인과 비대면 교류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며 동문 간의 유대를 유지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개된 모임에서는 동문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교류를 회복하고, 동문회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2023년 7월, 제8대 동문회가 출범하였고 회장으로 추대된 정길화(78) 회장은 “마라톤 주자이자 릴레이 선수”라는 마음가짐으로,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적인 발전과 다음 세대로의 책임 있는 전승(傳承)을 강조했습니다. 정회장은 총동문회와의 연대 속에서 스페인어과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 간 친목과 단결을 강화하며, 학과 발전에 기여하는 동문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 또한 밝혔습니다. 8대 스페인어과 총동문회는 2025년 학과 창립 70주년에 즈음하여 재회(Reunion), 재건(Reconstrucción), 부흥(Renacimiento) 등 3R의 정신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동문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학과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는 소중한 모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8대 집행부 명단(괄호 안은 학번)

회 장: 정길화(78)
부 회 장: 윤경욱(83), 심동욱(83), 박범용(84)
사무총장: 이해영(91)
사무차장: 인종훈(83)
고 문: 김우중(72)
감 사: 김미경(01)

골프회

스페인어과 총동문회 골프회는 동문 선·후배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동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라운딩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이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88CC에서 창립 라운딩을 시작하여 상·하반기 결산대회 등 주요 행사를 포함해 정기적인 모임을 이어오며, 동문 간의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해왔습니다.

총동문회 골프회는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 동문들의 교류의 장이자, 세대 간 소통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건강 증진, 그리고 동문 간의 끈끈한 유대 강화”라는 목적 아래, 선후배가 함께 어울려 즐기고 성장하는 소중한 모임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동아리 [Espíritu]

스페인어과 총동문회에서는 영화, 공연 등 문화생활을 함께 하는 동아리 Espiritu를 운영하였습니다. 글자 그대로 스페인어과의 정신을 고양하고 표상하는 모임입니다.



외맥 산악회

심동욱 (25년도 회장)

스페인어과 총동문회에서는 동문회 활성화와 동문간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외대글로벌캠퍼스에 위치한 공기 맑고 풍경이 수려한 ‘왕산’에서 2009 년 6 월 6 일(토)에 『스페인어과 총동문 산악회 창립 행사』를 그 당시 박철 (스페인어 68)총장, 방시영(스페인어 68) 스페인어과 총동문회 회장, 김규진 용인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하여 스페인어과 동문 43명과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재학생 2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스페인어과 총동문회 산악회인 “외맥산악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외맥산악회는 스페인어과 선, 후배들이 정과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졸업동문들이 함께하는 산악회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외대의 맥을 잇기 위한 모임”을 갖고자하는 취지에서 만든 산악회입니다.

2009년 6월 6일 이후 1대 남순대(S69)회장님과 2대 강연국(S70)회장님, 3대 윤상기(S73)회장님, 4대 조태용(S80)회장님 그리고 현재 5대 심동욱(S83)회장님이 산악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산악회는 매월 건너뛰는 일 없이 이어오고 있고 최근 2025년 5월(172회차), 글로벌캠퍼스에서 스페인어과 창립 70주년 기념산행을 진행했습니다.

매월 산행에 참석하는 동문들은 산과 들을 걸으면서 자신의 매 순간 건강을 체크하여 건강의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업그레이드되도록 합니다. 삶의 활력소가 되기 위해,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을 느끼기 위해,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머리가 지식으로 채워지지만 자연을 만끽하면 우리의 가슴속 심장이 활짝 열리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하여 꾸준히 동문, 선후배들이 함께하는 산악회입니다.



스페인어과 총동문회 산악회 창립행사
(박철총장님외 63명 동문참석. 2009.6.6)



제 2차 글로벌캠퍼스산행 (우덕룡교수님과 50 여 동문참석)



제21차 서리산산행



제 34 차 안면도 노을길 12km 완주



제 78 차 도드람산행



제 85 차 강릉 솔향수목원



제 93 차 대관령 옛길산행



제 121 차 두타산산행



제 137 차 청송 주왕산산행

외맥 산악회

심동욱 (25년도 회장)



제 140 차 오대산산행



제 146 차 제천 옥순봉산행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창립 70주년 노고봉 기념산행 (2025.5.3)



제 167 차 치악산산행



제175차 심학산산행



제176차 민등산산행



제177차 태화산산행



산행 후 뒤풀이

한국외대스페인어과 개교 70주년 및 외맥산악회 글로벌캠퍼스 기념산행

산행일 : 2025.05.03(토)
산행지 :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
10시에 명수당집결.

만남시간과 장소 :
08:30 종합운동장역 2번 출구 (정신여고)앞 신정관광버스(빨간색)
(개별 차량이용 회원은 10시까지 명수당에 도착. 차량번호 사전등록필요-
차량번호, 이름, 핸드폰등록)

회비 : 삼만원 (₩ 30,000)
카카오뱅크 (한국외대스페인어과총동문회) 7979-82-55267

산행코스 : 10시에 개회식후 캠퍼스 구경하면서
A.산 행 조 : 명수당 - 등산로 - 노고봉 - 정광산 - 용인자연휴양림하산
B.트레킹조 : 명수당 - 임도트레킹로 - 용인자연휴양림. (총 8KM)

느티나무 (뒷풀이)장소 - 3시 (031-339-9291)

- * 선물로 기념품 지급.
- * 스페인어과 총동문화찬조 5십만원
한국외대스페인어과총동문회 및 외맥산악회
임원 일동.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창립 70주년 기념산행 포스터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스페인어과 총동문회의 「송년의 밤」은 2004년 처음 시작되어 매년 연말이면 어김없이 이어져 온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시간을 함께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할 힘과 희망을 나누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한마당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송년의 밤은 세대를 아우르는 동문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선후배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나기 어려운 동문들이 이 자리를 통해 다시 이어지고, 해외와 지방에서 활동하는 동문들과도 교류하며 동문회가 하나로 묶이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한 해 동안 동문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축하 공연과 장학금 전달, 자랑스러운 동문상, 공로상, 우정상 시상,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해져 해마다 풍성한 감동을 선사하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송년의 밤은 이제 스페인어과 동문회의 소중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송년의 밤은 선후배 동문 모두가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교류의 장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2005년 송년의 밤



2008년 송년의 밤



2010년 송년의 밤



2011년 송년의 밤



2012년 송년의 밤



2017년 송년의 밤



2019년 송년의 밤



2023년 송년의 밤



2024년 송년의 밤

총동문회 포럼 (성공포럼, 광화문포럼, 미네르바포럼)

스페인어과 총동문회는 학문과 현실, 지성과 교류가 만나는 장을 만들기 위해 2003년 성공포럼(Foro Exito)이라는 이름으로부터 포럼을 개최하였고 초대 연사로 KOTRA 홍익희 동문 (73)을 초대해 “유대인 창익성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유익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후 2024년 8대 집행부에서 ‘광화문 포럼’을 재출범시켰습니다. 포럼은 단순한 강연회를 넘어, 시대적 담론과 인문학적 통찰을 나누며 동문 간의 유대와 지적 연대를 강화하는 지식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광화문 포럼’은 학문·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외대 스페인어과 동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문학의 깊이와 시대적 시야를 함께 넓히는 장이었습니다. 스페인어과 동문뿐 아니라 타 학과 동문, 재학생,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포럼으로, 외대 스페인어과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품격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3월, 정길화 회장(78)의 “K-콘텐츠,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는 주제의 강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제 1차 포럼은 한류의 현 주소와 한류를 통한 중남미와의 연결을 찾아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 제 2차 포럼,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스페인어 73)가 “연준 탄생사 - 청어가 만든 자본주의의 씨앗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유대인의 경제사와 세계 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을 통찰력 있게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5년 3월 제 3차 포럼, 윤준식 박사(스페인어 84, 마드리드대 박사)의 “『돈키호테』, 역사와 소설의 경계” 강연은 스페인 문학을 통해 인문학의 본질과 학과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포럼의 명칭을 ‘미네르바 포럼’으로 변경하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습니다. 5월 열린 제4차 포럼에서는 김기현 교수(스페인어 81)가 “트럼프 집권 2기, 멕시코의 도전과 기회 - 트럼프 vs 셰인바움”을 주제로 북미 정세와 중남미 정치경제의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어 9월에는 박철 전 총장(스페인어 68, 한국외대 명예교수)이 “나와 스페인어문학”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치며, 세르반테스 문학과 스페인어 연구의 여정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광화문·미네르바 포럼은 매회 50~100여 명의 동문과 재학생,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며 지성과 우정이 공존하는 스페인어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네르바포럼은 인문사회학적 통찰과 소양을 함양하고, 선후배 동문들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뜻있는 자리를 지향할 것입니다.



2003년 성공포럼



제 2차 광화문포럼



제 4차 미네르바포럼



제 5차 미네르바 포럼

총동문회 산하 중남미 동문회

총동문회 산하 중남미 각 나라별 동문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동문회가 활발하게 운영됨에 따라 스페인어과는 다른 학과와 달리 동문회 명칭을 특별히 '스페인어과 총동문회'로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 멕시코 동문회
- 과테말라 동문회
- 칠레 동문회
- 파나마 동문회
- 코스타리카 동문회
- 도미니카 동문회
- 콜롬비아 동문회
- 엘살바도르 동문회



파나마 동문회



칠레 동문회



과테말라 동문회



멕시코 동문회



도미니카 동문회



엘살바도르 동문회

총동문회 장학금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총동문회는 별도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 2학기 두 번에 걸쳐 학업 성적, 학과 활동, 봉사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된 재학생들에게 총동문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 근조기 운영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총동문회는 동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자 근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키호테 정신

박 철 명예교수 (제8,9대 총장)

여러분, 『돈키호테』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긴 창을 들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조금은 엉뚱한 기사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결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다. 57년 전 스페인어과에 입학한 저는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통해 전하고자 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불굴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세르반테스가 살던 16세기 스페인은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면서 주어진 귀족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땀으로 자신의 혈통을 만들고 인정받는 사회, 그게 바로 세르반테스가 꿈꾼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돈키호테』에서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를 없애고, 공화국에 봉사하기 위해 기사가 되고자 한다.”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하죠. “자유야말로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가장 고귀한 보물이다.”

돈키호테에게 자유는 단순히 구속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옳다고 믿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한 세상과 싸우고, 약자를 지키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권위있는 스페인 왕립학술원 사전에서 ‘돈키호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이상을 우선시하고,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사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

이 정의만 봐도 알 수 있죠. 돈키호테는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니라, 세르반테스가 꿈꾼 이상적인 인간상이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당시의 교회나 귀족, 그리고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기사소설의 형식을 빌렸습니다. 그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영향을 받아 종교의 자유, 사랑의 자유, 귀족 세습이 없는 공정한 유토피아적 공화국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돈키호테』 2편에서 산초 판사가 다스린 ‘바라타리아 섬’의 이야기 속에 멋지게 실현됩니다. 비록 허구이지만, 세르반테스는 그곳에서 “인간은 누구나 훌륭한 천성과 미덕이 있다면 통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사상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인간은 남보다 더 노력하지 않고서 남보다 더 훌륭해질 수가 없는 법이다.”

그는 혈통보다 인간의 미덕과 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의 비천한 혈통을 자랑하거라. 그리고 네가 농부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미덕은 혈통보다 더 귀하다.”

이 말에는 세르반테스가 평생 믿었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금수저 태생이 아니라, 좋은 미덕과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돈키호테』의 또 다른 특징은 등장인물들입니다. 무려 659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의 유럽 문학에서는 주로 왕, 귀족, 성직자, 부유한 상인 같은 상류층이 주인공이었지만, 이 작품에는 농부, 하녀, 양치기, 이발사, 죄수, 거지, 도둑, 산적, 무어인, 심지어 두장이까지 나옵니다. 세르반테스는 모든 인간이 우리 사회의 이웃이며 중요한 구성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소설의 출발점이 되었죠. 세르반테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레판토 해전’(1571년)의 전쟁 영웅이었지만, 돌아온 그의 인생은 가난과 감옥살이로 이어졌죠.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절망의 시대를 살지라도 한 번 뿐인 인생을 자유롭게 명예롭게 살아야 한다.”

그의 불굴의 정신은 돈키호테의 모습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그 모습은, 어쩌면 세르반테스 자신이 세상과 맞서 싸운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돈키호테』는 단순한 기사소설의 모험담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자유와 정의, 인간의 존엄을 향한 열정이 살아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통해 귀족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인간은 남보다 더 노력하지 않고서 남보다 더 훌륭해질 수가 없다.” (1편 18장)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 (2편 58장)

이 문장은 세르반테스가 남긴 가장 고귀한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자유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정신, 그것이 바로 돈키호테의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부를 걸어볼 미개척지이다

김이배 교수님 (1929.5.28.-2009.5.29.)



김이배 교수님
(1929.5.28.-2009.5.29.)

국내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배울 수 없던 1955년 김이배 교수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스페인어과를 창립하셨습니다.

동아일보(1994/4/9) 기사에 따르면, 교수님은 1948년 서울의 동양외국어전문학관에서 처음으로 스페인어를 접하였고, 곧 “승부를 걸어볼 미개척지이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같은 해 유엔 한국위원단의 엘살바도르 대표 피델 산체스(Fidel Sánchez)를 일부러 만나러 가셨지만, 의사소통에 완전히 실패하고 깊이 좌절하셨습니다. 산체스는 교수님께 스페인어를 좀 더 배워서 오라고 했고, 이후 교수님은 용산 등지의 미군 부대에 드나들며 멕시코 출신 군인들과 산체스로부터 스페인어를 익히셨습니다.

본교에 스페인어과가 생기게 된 계기는 안호삼 초대 학장의 권유 때문입니다. 당시 교수님께서서는 정규 학위가 없는 상태여서 주저하셨지만, 안 학장의 설득으로 교수와 학생 신분을 동시에 갖고 공부를 해서 4년 뒤 스스로에게 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그러나, 1961년 워싱턴에 브라질 대리대사로 파견되면서 1973년 복직할 때까지 학계를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워싱턴 부임 후 5개월여 만에 5.16이 터졌고 쿠데타에 반대하셔서 파면을 당하셨습니다. 이후 콜롬비아 대학에서 스페인어과 교수를 역임하시기도 하고 67년에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으로 출마한 산체스의 특별보좌관이 되어 5년간 선거 참모로 재임을 돕기도 하셨습니다.

1973년 본교에 다시 복직하셔서 전경련 등의 자문위원으로 국내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돕고 국내 여러 대학에 스페인어과를 창설하시고 후학들을 배출하여 중남미 진출의 초석을 쌓으셨습니다. 또한 후배 교수들을 모아 한국서어서문학회회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학자들을 모아 아시아서어서문학회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수많은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와 스페인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많은 훈장을 수훈하셨고 스페인 왕립학술원의 명예 회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본교에서는 2009년 인문관 1203호를 김이배 강의실로 헌정하여 교수님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1968년
엘살바도르 피델 산체스 대통령과 함께



1983년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 국왕과 함께(스페인 학술원 정회원 임명식)



1985년
8월 28일 제1회 아세아 서어서문학회 학술대회



1994년
8월 30일 김이배교수님 정년퇴임 기념논문 증정식



직접 타자기로 작성하신 이력서

한국과 중남미, 스타트업으로 연결되다

한승주 (25학번)

「 중남미 스타트업 생태계의 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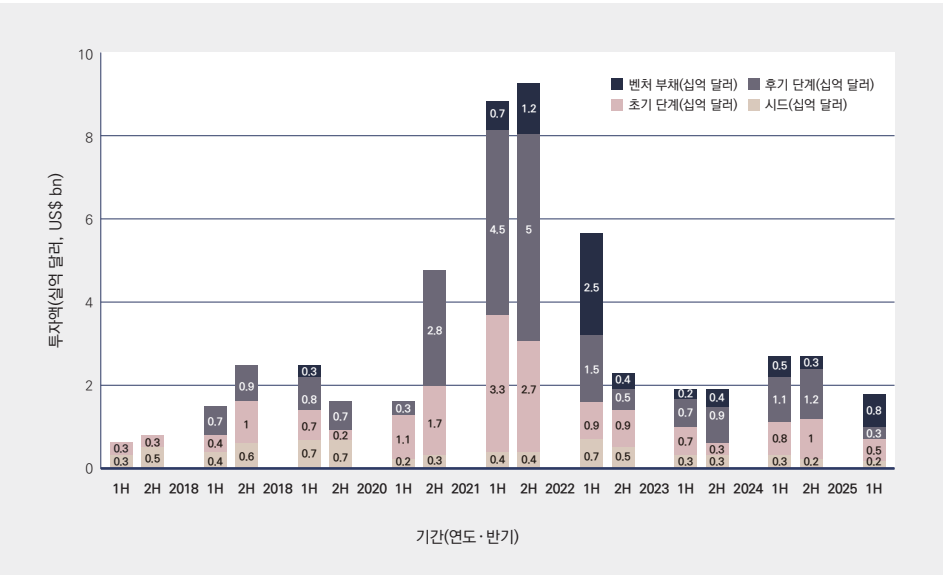
최근 중남미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과 함께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Global Startup Ecosystem Index)에서 상위 100개국 중 중남미 13개국이 포함되었다.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가 상위권에 안착해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중남미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남미 순위	세계 순위	전년 대비 변화	국가	총점
1	27	-	브라질	9.775
2	38	△ 2	콜롬비아	6.386
3	39	▽ 3	칠레	6.025
4	41	▽ 4	멕시코	5.868
5	42	▽ 5	아르헨티나	5.09
6	58	▽ 3	우루과이	2.602
7	69	-	페루	1.07
8	75	▽ 3	코스타리카	0.912
9	84	△ 2	파나마	0.819
10	89	△ 3	자메이카	0.696
11	93	new	트리니다드토바고	0.541
12	94	△ 13	에콰도르	0.534
13	97	△ 7	파라과이	0.385

*출처 : 라틴아메리카 협력 센터

중남미 스타트업 생태계지수 및 국가 순위

중남미 스타트업 단계별 VC 투자 (2017~2025년 상반기)



*출처 : LAVCA(라틴아메리카 벤처캐피털 협회)

중남미 스타트업 생태계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수요 폭발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예외적 과열을 겪었으나, 이후 급락 없이 안정적 조정을 거치며 성장세를 보인다. 이후 초기 단계 중심의 흐름이 유지되며, 주요 허브 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창업과 외부 기업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져 성장 잠재력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

연도	협력	참여 주체	핵심 내용	성과
2011	IDB-KSP 공동컨설팅 시작	한국기획재정부, 한국 개발 연구원(KDI), 미주개발은행(IDB)	KSP(지식공유사업)을 통해 중남미 국가 정부에 창업-혁신 정책 자문 제공	스타트업 협력의 초기 정책 기반 마련, 정부 차원의 제도적 인프라 지원 시작
2017~2019	KOICA ODA-ICT 협력센터 사업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브라질 정부 및 현지 기업	한국 기술 기반의 IoT·스마트홈·스마트팜·5G 솔루션 실증 프로젝트 운영	브라질 현지에서 한국 ICT 솔루션의 적용 가능성 입증, 스타트업 실증 기반 마련
2019	LAC-Korea 비즈니스 서밋 (첫 Startup Pitch-Day 개최)	한국기획재정부, 본투글로벌센터,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 스타트업 15개사	한국 투자자·기업과 중남미 스타트업 간의 첫 공식 매칭 행사	스타트업 교류의 본격화, 한국-중남미 간 투자·파트너십 논의 시작, 7건의 기업 간 MOU를 체결
2020	LAC-Korea 답테크 교류 프로그램	본투글로벌센터, IDB랩, 한국-중남미 스타트업	온라인 피칭·매칭, 조인트벤처(JV) 후보 발굴 및 사업 제안서 접수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류 지속, 총 32건 후보 중 10건의 사업제안 제출
2021	5개 조인트벤처(JV) 파트너십 승인	한국 혁신기업 5개사, 중남미 스타트업 5개사, IDB랩	물류·교육·산업자동화·접근성 분야에서 한-중남미 간 합작법인 설립	5개 JV 확정, IDB Lab에서 프로젝트당 12만 달러 지원, PoC(실증) 진행
2023	한-브라질 공동 연구 공모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라질 CNPq, 양국 스타트업 연구자	보건·바이오에너지·우주·신경과학 등 분야별 공동연구 과제 공모	스타트업-연구자 공동 프로젝트 발굴, 학문-산업 협력 확장
2024	콜롬비아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ICA, 콜롬비아 정부·청년 창업가	한국청년창업사관학교 모델 도입, 예비 창업자 교육, 기술혁신 기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	약 800명 창업 인재 육성, 100개 기술혁신기업 지원

「 한국-중남미 스타트업 협력의 발자취 」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에 발맞추어, 한국과 중남미는 지난 10여 년간 정책 자문에서 출발해 매칭 · 합법적인 설립 · 공동 연구개발 · 청년 창업 지원 등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왔다. 중남미 스타트업 시장의 안정적 성장세는 단순한 투자와 교류를 넘어, 양 지역의 실질적 공동 성장이라는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남미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급속히 성장하는 디지털 수요에 한국의 ICT 혁신 기술이 더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정책과 기술의 결합은 향후 물류, 교육, 산업 자동화 등 핵심 분야에서 차별화된 협력 모델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2024년 콜롬비아에 개소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 세대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의 좋은 사례로, 중남미가 한국의 청년 창업자와 혁신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협력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녹색’ 시대 전환의 새로운 동반자,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김찬일 (25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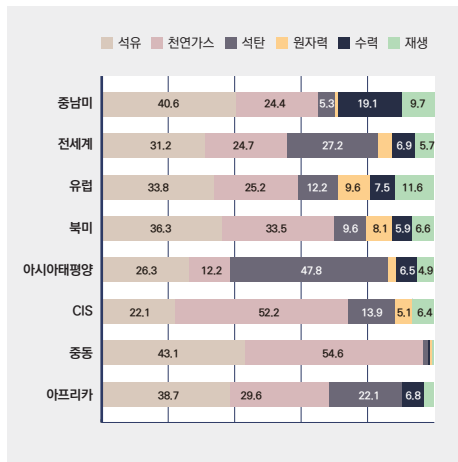
「 녹색 가치와 잠재력 」

‘녹색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의 등장과 함께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는 과거 문화적 교류와 단순한 상호 보완 교류를 넘어, 전략적 협력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는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열대우림과 세계적 수준의 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자연 환경적 이점 덕분에 라틴아메리카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에너지 생산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는 자연·기후적 특성을 바탕으로 수력, 지열,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았다. 2020년 기준 라틴아메리카의 재생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28.8%를 차지하면서 높은 청정에너지의 비율을 보인다.

이와 같은 청정에너지 산업 기반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타 국가 대비 재생 에너지 산업을 수월하게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니켈, 리튬 등 핵심 광물의 풍부한 매장량이 더해져,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칠레·페루·멕시코는 주요 광물 매장량이 세계 10위권을 웃돌고 있으며, 2023년 국제에너지기구(IEA) Latin America Energy Outlook를 통해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전력화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자원의 1/3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가 앞으로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지니며, 향후 녹색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출처 :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2020)

[그림 2]

자원종류	주요 생산국	매장량	세계비중/순위	세계비중/순위
은	페루 멕시코	11.0만 톤 3.7만 톤	19.6%(1) 6.6%(6)	4,300 톤 6,100 톤
*구리	칠레 페루	1.7억 톤 0.8억 톤	20.5%(1) 10.0%(3)	580만 톤 240만 톤
금	페루 브라질 멕시코	2,600톤 2,400톤 1,400톤	4.8%(5) 4.4%(7) 2.6%(10)	145 톤 81 톤 125 톤
*리튬	칠레 아르헨티나	800만 톤 200만 톤	57.1%(1) 14.3%(3)	16,000 톤 6,200 톤
최토류	브라질	2,200만 톤	18.3%(2)	1,000 톤
팅스텐	볼리비아	NA	NA	1,000 톤
니오븀	브라질	730만 톤	80.2%(1)	6.0만 톤
탄탈륨	브라질	3.4만 톤	30.9%(2)	100만 톤
니켈	브라질 쿠바	1,100만 톤 550만 톤	12.4%(3) 6.2%(6)	8.0만 톤 5.3만 톤
망간	브라질 멕시코	11,000만 톤 500만 톤	14.5%(3) 0.7%(9)	120만 톤 22만 톤

*출처 : EMERiCs 중남미(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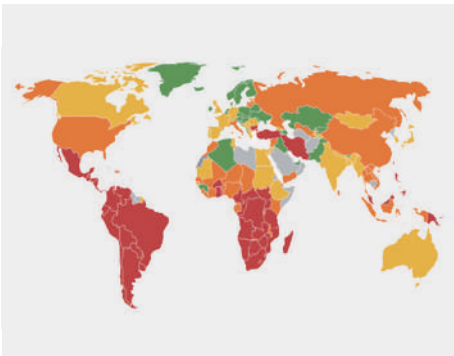
「 한계와 성장 」

라틴아메리카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적 에너지 육성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목표 실현에 필요한 사회 제도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저성장, 사회적 불평등, 인프라·기술·투자 부족 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3]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지니계수를 제시하며, 이 지역이 극심한 소득 불평등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4]에서 확인되듯, 최근 5년간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더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조차 성장세를 이어가는 반면, 라틴아메리카는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이 반영된 결과임을 보여주며, 경제적 저성장과 사회적 불평등의 근본 문제 해소가 향후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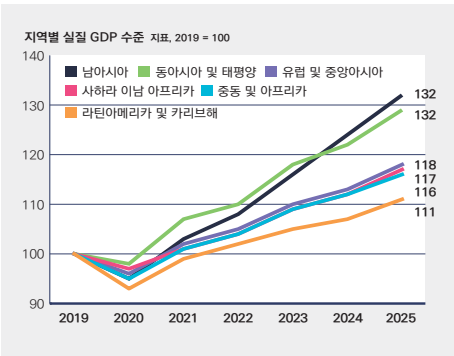
따라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는 단순히 자원 보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법률 체계 확립·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사회적 신뢰 형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라틴아메리카의 재생에너지 육성과 경제적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2024)

[그림 4]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2024)

「 한국과의 협력 」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친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산업화 경험과 해외 투자·금융 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친환경 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생산 비결을 활용해 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와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라틴아메리카의 녹색 산업을 확장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반대로 한국은 라틴아메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세제 혜택으로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미국 인근 국가에 생산 시설을 두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통해 북미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며,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해 녹색 전환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기술·자본·시장 연계를 통한 상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략적 협력 모델로 발전할 것이다.

[그림 3]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지니계수

[그림 4]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최근 5년간 경제 성장세

한국과 중남미, 문화관광 협력의 새로운 비상

윤서하 (25학번)

최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관광상품의 확대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자연 자원과 다양한 문화 역사적 유산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중남미 지역은, 빠른 성장세와 함께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중남미 국가 관광 산업의 현황 」

코로나19 팬데믹은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관광산업에 큰 전환을 가져왔었다. 2018년에는 안정적인 관광 수입을 기록했으나, 2020년 팬데믹으로 전 세계 여행 제한이 강화되면서 일시적 성장 저하를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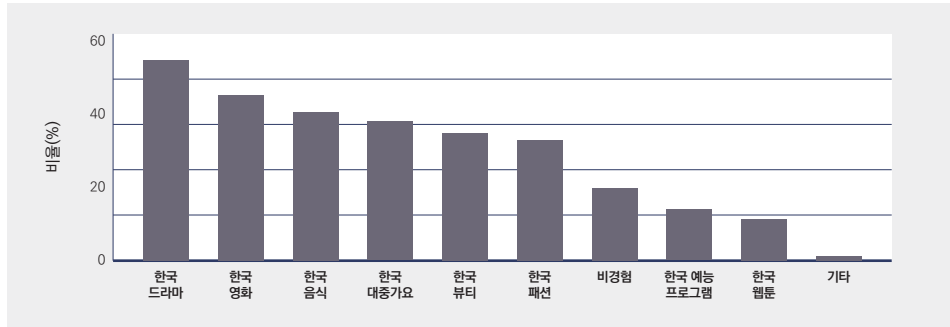
이후 2022년에는 관광 인프라 재정비와 국가의 전략적 홍보 효과를 통해 점진적 회복세가 뚜렷했다. 그 결과 2024년 한국을 찾은 중남미 관광객은 97,212명으로,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기록(96,211명)을 넘어섰다. 이 지표는 단순한 여행 수요 회복을 넘어 관광 산업이 국가 경제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2018-2019	2020-2021	2023-2024
멕시코	약 245.6	약 51~86	약 370.2
칠레	약 40	약 15~20	약 43.7
페루	약 30	약 10~15	약 35.05

*출처 : 코트라(KOTRA)

국가	2018-2019	2020-2021	2023-2024
멕시코	약 41.5	약 11.6~15.0	약 45.0
칠레	약 5.0	약 0.7~1.0	약 5.4
페루	약 4.35	약 0.8~1.0	약 4.4

*출처 : 코트라(KOTRA), 한국관광데이터랩



*출처 : 한국관광데이터랩

최근에는 OTT 플랫폼 확산과 K-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을 찾는 중남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접한 세련된 도시 풍경과 전통시장, 길거리 음식, 카페, 한복 체험 등이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방문 이유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K-라이프스타일'과 한국의 일상에 대한 호기심이 신규 관광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 한국 - 중남미 국가 간 만남과 도약 」

오늘날 중남미 국가들은 지속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과 함께 한국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관광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국가	내용	사진자료
멕시코	<p>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는 중남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멕시코시티에 지사를 설립하고, 2024년 11월 25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어 멕시코시티 대형 쇼핑몰 오아시스(OASIS)에서 한국관광대축제(Festival Turistico de Corea 2024)를 열어 K-팝 아티스트와 퓨전국악단의 축하공연으로 약 2만 명의 관광객이 축제를 즐겼다.</p> <p>2024년 8월 3일 아에로멕시코는 라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서울 인천국제공항과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을 재개했다. 이 직항 편은 미국에서 환승 시 필요한 비자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비행시간을 크게 단축되어 중남미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p>	 *사진 출처 : 한국관광공사, 아에로멕시코
콜롬비아	<p>2025년 7월 18일 프로콜롬비아(ProColombia)는 '2025 대한민국 국제 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현장에서는 콜롬비아 전통 춤인 살사와 콤비아 공연이 펼쳐져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프로콜롬비아는 6개 주요 관광 권역을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소셜미디어 영향력 확대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p>	 *사진출처 : 국제뉴스
대한민국	<p>2025년 9월 21일 서울 성북구에서 제 12회 라틴아메리카 문화 축제가 개최되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라틴아메리카 문화 축제로, 중남미 13개국 대사관이 참여해 전통 음식과 공예품 전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전통 문화 공연 등을 선보였다. 다양한 국가가 어우러져 긍정적 삶의 에너지를 공유하며 세계인의 소통과 공감, 화합을 이루는 현상이 되었다.</p>	

「 함께 열어갈 문화와 관광 산업의 미래 」

오늘날 국가 간 관광 산업은 경제 성장 수단을 넘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은 각자의 고유한 문화적 강점을 공유하여 깊이 있는 교류와 지속 가능한 협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관광 산업과 문화 교류의 제도적 활성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고 협력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는 관광객 수 증가라는 단기적 지표를 넘어 국민 간 신뢰 구축과 문화·경제·사회적 동반자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의 발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관광 수입
(단위 : 억 달러)

외국인 관광객 수
(단위 : 백만 명)

중남미 관광객 및
방한 의향자 대상 경험해보고
싶은 한국 문화 순위



Real de San Carlos - 레알 데 산 카를로스

Real de San Carlos, in Colonia del Sacramento, UNESCO World Heritage. Built in 1680, Colonia invites visitors to a travel through history and time.

Colonia del Sacramento에 위치. 1680년에 지어졌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도시의 역사와 과거를 탐험할 수 있다.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Garzon Bridge - 가르손 교

Garzon Bridge, with its unique design, joins the Departments of Maldonado and Rocha with its golden beaches and take breathing views.

Garzon Bridge는 Maldonado와 Rocha지역을 연결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다리, 황금빛 해안과 멋진 경관을 자랑한다.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Teatro Solis - 솔리스 극장

Teatro Solis. Located in the historical area of Montevideo, was built in 1856. Nowadays is the main theater of Uruguay, with outstanding performances throughout the year.

몬테비데오 역사지구에 위치, 1856년에 지어졌다. 수준높은 공연 덕분에 오늘날 우루과이 대표 극장으로 자리잡았다.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Puerto del Buceo - 부세오 항

Night view of Puerto del Buceo, Montevideo, from the Rio de la Plata.

Rio de la Plata에서 바라본 부세오 항구의 야경, 몬테비데오.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1955

강철수	김용건	김재경	문원경	방인범	손용환	이승하	정석준	최대훈	홍일표	김광선	김이배	김현창	민태식
배정환	송영균	이영욱	정치호	최돈수	황선명	김광호	김이중	김홍배	박 만	백봉현	이만우	이해성	조갑동
최득주	김 구	김인건	김흥수	박원규	성대두	이병훈	이호남	조기성	최우용	김요상	김일천	남태현	박창복
손용근	이상규	장선영	조승철	최재웅									

1956

강충원	권오철	김성채	김재선	김창수	노정훈	박 노	박영진	방을수	송명규	강태봉	김갑동	김연기	김재응
김춘식	류면희	박동욱	박웅상	백선열	송수석	고상훈	김명호	김영석	김재훈	김항수	문정자	박상규	박찬수
서만현	송인홍	고원기	김백경	김영익	김정식	김해성	문창영	박석재	박창순	석진하	신승균	권오국	김선용
김원욱	김진항	김형초	민병혁	박성환	박창호	손호빈	신창선						
안화서	오유문	윤태현	이봉기	이재승	이화영	정민환	조무연	최대환	피응덕	양태한	우덕용	이건식	이상조
이종훈	이희곤	정상수	조양환	최보동	허진욱	오성준	우병문	이기윤	이설희	이중국	임병수	정종석	주수강
최 성	홍순호	오세윤	윤민현	이동현	이의종	이현길	장세현	조공기	진인영	최성진	홍해룡	오원근	윤석천
이문석	이장복	이혜기	정규욱	조동환	차서륜	최경남	황계영						

1957

고 등	김권태	김성덕	김홍준	박동근	백낙진	서일성	오성직	유영진	이광우	고태경	김순희	김인호	김희배
박문규	부영훈	송일현	오윤오	윤대중	이상선	공노수	김신근	김창우	류성용	박순재	서근하	심재운	오주석
윤수영	이석한	권 혁	김오동	김창호	마영일	박영준	서동찬	엄성태	오한영	윤영자	이용준	김광진	김원섭
김창환	문기주	박웅국	서송묵	오문환	유상린	이경찬	이우영						
이원우	이택규	정우용	조학연	최희성	황광수	이익근	임현기	정태관	진영호	하림섭	이장환	임홍엽	정희년
최갑림	한영운	이종선	정동희	조양호	최수명	한행남	이종원	정영순	조용국	최인섭	홍재풍		

1958

갈왕노	권일관	김근수	김수훈	김인식	김현주	박동진	백영종	손관수	양양수	강상도	권충구	김도흠	김순진
김정남	김 호	박상천	백응권	손영민	이광우	강한철	김관희	김문수	김영자	김주원	김흥찬	박정생	백희엽
신용수	이면우	고원석	김광주	김부남	김용기	김창호	류동우	박찬식	선봉옥	심규세	이무중	공환영	김광진
김선용	김원명	김천응	문학무	박충범	설준귀	안태명							
이용범	전순태	조완성	최병학	허현식	이원우	전영규	조태영	최영락	홍성희	이정명	정순영	조항래	한건수
황길연	이호선	정태봉	조환영	한상윤	임용빈	조명훈	차정석	한용한					

1959

강수웅	김경산	김성준	김종팔	김충남	박대현	박제훈	배성욱	송형철	심효순	구건서	김두한	김수영	김진수
김학윤	박병호	박종근	서윤수	신복영	양경일	권오구	김명희	김인성	김창구	남인현	박상혁	박창우	손완수
신승평	어성우	금종진	김상웅	김정기	김창식	문대웅	박소자	방무길	손후영	신조웅	오동환	김갑생	김성용
김정도	김충규	민경선	박재범	방한웅	송기학	심우섭	오명호	오세민	유용주	이봉근	이승우	정규호	조규석
최등용	홍장희	오세윤	윤승구	이사연	이응락	정연웅	조동호	최일렬	황기수	오세작	이경로	이상규	이종규
정운태	조승남	한동리	위정식	이남득	이상집	장기철	정원철	조용훈	한종희	유병훈	이병무	이성일	전준수
정희진	최광능	함용록											

1960

강신악	권영철	김상철	김재황	박경숙	박영길	배경수	신영민	윤준수	이정교	장대식	정운봉	조희왕	홍남익
강영숙	권화순	김석찬	김한창	박만인	박청정	백승국	심상구	이계익	임성호	전영일	정인섭	최공식	홍영록
강용구	김강일	김선기	김화영	박병오	박태근	변봉준	오성준	이기성	임진남	정신일	조경준	최인태	황의석
고애자	김기영	김용환	류양우	박상신	박태훈	서영자	오옥환	이윤만	임호재	정양인	조성옥	최창룡	권세리
김기준	김원조	문광현	박성덕	박호일	석영징	윤석영	이익우	장 권	정옥강	조성은	최희국		

1961

강대우	공 문	권의광	김길원	김문수	김승이	김영환	김진휘	류재신	박동화	박영원	박진욱	서영산	심순영
강승중	구경웅	김경호	김동섭	김민수	김연자	김용언	나정길	맹하란	박문수	박영자	박청래	서정탁	안덕준
강영구	구교중	김광일	김동웅	김상섭	김영식	김재하	노신자	민경택	박상창	박재휘	박홍규	성영소	양원건
강태호	구민웅	김 근	김명하	김성철	김영조	김정숙	노전칙	민남규	박소부	박정옥	배병하	송영철	오정환
고대명	권민치	김기숙	김무경	김소자	김영주	김종호	류인구	민용태	박 실	박정차	백진호	신재식	원재훈
유기윤	윤 실	이길남	이선하	이영수	이종오	이해석	임철식	장종덕	정진무	조광희	최종항	추고행	홍석규
유의웅	윤혜자	이 능	이성근	이영자	이종원	이현찬	장성길	장한필	정진숙	조영방	최창균	한길웅	홍순양
유재욱	이강호	이도희	이송복	이웅진	이 진	이형근	장세용	전명철	정창해	조우규	최현상	한명석	홍창호
유정근	이경기	이복원	이승언	이원영	이창영	임문자	장순혁	정성남	정현주	조현국	최호진	한영자	황룡수
유진경	이광길	이상봉	이승환	이정숙	이학현	임성오	장원식	정인화	정화진	최웅기	최흥선	함창석	

1962

강남진	김만평	김중광	박덕신	신영호	임미지자	정재삼	최달훈	최화준	강석영	김무진	김충식	박성원	신을재
임쌍규	정태의	최민자	강한중	김선일	김흥순	성정홍	양한석	임용규	조중서	최병원	곽윤길	김장생	류시대
손영광	오지세	임종학	조충일	최인결	김국호	김정현	문의용	송정자	이광암	정시택	최광남	최일성	

1963

강원길	권순한	김삼룡	김태경	박직생	소종철	심국웅	유한근	이우길	정영택	천경숙	홍기호	강정부	김규태
김석운	남청자	박철용	손병조	심재봉	윤건중	이정재	정진복	최건식	홍성혜	고영남	김남구	김윤일	노달현
박황배	송기호	양용성	이강일	임명섭	조대무	최공자	홍정자	공효건	김대규	김은수	도대웅	백준영	송찬섭
양용치	이악순	장화선	조명자	최대식	홍충환	권수일	김보배	김정자	박익웅	백창곤	신진식	양 진	이연자
전옥자	조한광	호광덕	황호철										

1964

강은식	김동인	김홍천	박남규	박은숙	설신자	신용규	윤정필	이봉익	이순자	이철남	장조자	조영길	한화길
경학수	김수희	남순우	박덕길	박재엽	손대현	오장식	이 건	이상훈	이승배	이 훈	장학태	차기봉	함명호
권석훈	김종욱	남용우	박득하	박종원	손화엽	원용승	이명수	이선희	이양자	이희신	정문성	차익남	황규영
김기영	김종현	류성숙	박옥환	백광수	송도균	유정호	이민우	이성환	이윤성	이희철	정상화	차주남	김대호
김진영	모경수	박원조	백순신	신광철	유창원	이병욱	이송자	이창순	장동진	조경정	한갑수		

1965

강진호	김성은	김정일	박 양	서대원	안성문	이성웅	장영민	탁경숙	고부안	김성찬	김주흥	박인숙	손경락
이명열	이재희	정충남	하현주	고재홍	김인선	남궁완	배기봉	신개식	이봉식	이정기	정현숙	한원진	권태성
김재휴	남 열	백 성	심재원	이상료	이진성	최재순	홍희광	김국진	김정옥	남영우	빈중형	심정자	이성근
장규홍	최종석												

1966

강남식	김동주	김효수	류장석	성태훈	유진상	이정로	정기형	최정석	경채현	김선옥	나인자	박두현	송용채
윤재식	이진증	정원모	하영규	곽동수	김의덕	노승제	박영희	심창섭	이계정	이혜수	정태식	홍기철	금기중
김정수	류영수	박한태	양철후	이동철	장 휘	차규준	황석환	김동성	김주억	류영식	서재경	오윤희	이은천
전원대	최민혜												

1967

강기수	김명희	김일중	류지명	박종문	설창주	이용걸	이학우	조은걸	구영남	김상진	김종희	류희조	박종화
성석주	이은하	이회일	지성경	권순한	김선자	김진동	박 덕	박태국	신동호	이종도	정대균	최세현	김광선
김영식	김태홍	박정자	박 훈	유성희	이주원	정명식	현덕인	김명수	김이재	김홍근	박종두	서보관	유영수
이학수	정태선												

1968

강주안	권이영	김재호	박인필	방시영	안 열	이문희	이 철	조용완	홍순철	강찬중	권해로	김정국	박종범
송교선	안 용	이순경	장영호	조혜자	홍인숙	고영철	김동오	김종길	박 철	송종우	안 현	이승열	정상호
진인수	권대근	김성철	김주형	박한제	신덕기	위성국	이원희	정성희	최 단	권성중	김유원	박광순	박희주
안병모	윤석환	이재근	조남윤	한영규									

1969

강억재	김영철	김재윤	김흥식	박성훈	서성호	안택영	윤영욱	이성용	이정식	장세현	정원교	최보식	한규순
황상수	고혜선	김영희	김전식	남순대	박승국	송리라	염원철	윤종욱	이세원	이종규	전계성	조병기	최상면
허준도	구중서	김용순	김중서	맹현욱	박익서	송은석	오영기	이동주	이수덕	이창길	전유진	조병현	최 속
홍민철	김기홍	김재동	김형모	민 견	박찬호	신왕식	오한우	이병영	이영희	이호선	전종욱	채희욱	최영길
홍종면	김명순	김재범	김호성	박가연	박충순	안승환	유건주	이복진	이용우	장기성	정길수	최병주	최해원
홍종원													

1970

강대현	계기호	김동환	김유겸	박경이	박완수	배장운	신규일	우낙희	윤옥식	이승렬	이하영	정영두	최동희
최준철	강명진	구자욱	김수철	김인중	박명규	박재홍	백선기	안원환	원용학	윤용호	이원규	이효문	조근호
최상면	최화진	강성범	권오준	김양수	김종태	박무일	박 준	송기도	안태환	유영수	윤재환	이윤주	전영일
조달제	최영애	허인숙	강신자	기현서	김영기	김학철	박세웅	박태기	송인호	양완수	유재덕	이기환	이재호
전용근	조숙기	최용호	황규철	강연국	김근주	김영철	김형수	박승호	배영곤	송정식	오준성	유재훈	이 성
이종훈	정광채	차 봉	최인철										

1971

강성국	구자경	김기택	김시영	김재흥	김흥환	민병용	송영익	양선혜	유종철	이범수	이형도	전세욱	정인호
조세영	최영남	강성주	권익래	김동근	김양근	김지식	나병하	박경선	송재형	양혜순	윤준수	이 언	이홍배
전주열	정종훈	천해룡	하성준	강필선	김광섭	김동대	김영봉	김지한	노영균	박윤구	신승룡	우순명	이경희
이영섭	임경배	정석곤	조규형	최광석	한우태	고영욱	김광희	김병구	김영철	김충사	노은숙	석현규	안영권
원수욱	이관기	이 욱	임영희	정은주	조명상	최명현	현길수	고형일	김규철	김봉곤	김용석	김현기	류호선
손한열	안 윤	유승룡	이근해	이정태	임종원	정인수	조성행	최병일					

1972

강신구	구본현	김신영	김철주	맹인수	박종탁	송인기	양창석	이근호	이용기	이종억	정성모	최수영	강은선
김광엽	김용복	노경빈	문학건	박창래	신우철	우동기	이기봉	이용재	이중재	정 용	최윤국	고광석	김광일
김우중	노재춘	민선재	배민현	신윤식	윤현식	이기주	이용표	임종인	정학현	허광익	고정권	김기수	김이지
노형남	박계식	서영진	신정철	이 강	이기찬	이용희	임초욱	채익표	현영순	고환상	김동원	김종준	류인환
박두식	송수원	심재훈	이강재	이두용	이인영	전삼식	최경중	황병원					

1973

강서식	김근식	김창범	박장순	손문기	양형곤	윤석종	이원광	임재형	정진협	진국태	최성균	하윤호	홍종민
공연석	김동일	김춘원	백광찬	손현수	위상훈	이구원	이재열	임종완	조항의	채희복	최정상	한성자	곽영규
김명준	민경선	서상렬	신동석	유두영	이기상	이재형	장인혜	조형용	최덕렬	최종호	한창남	권태호	김인희
박계영	석호덕	신원섭	유병휘	이동규	이흥기	정낙형	조희자	최동렬	최진성	함기문	김광근	김정식	박미선
성경혜	신은숙	윤상기	이용선	이희철	정진설	지용범	최동원	최하수	홍순관				

1974

강신일	김대호	김영소	김은호	김춘진	류해명	박용철	백영주	송은섭	양성권	우제량	이동선	이욱주	이정균
권기정	김동수	김영희	김일경	김하수	문 범	박재진	백종국	신은진	양재범	윤명열	이동수	이웅선	임미성
김경배	김배원	김완규	김종원	김한상	민경선	박정식	변영남	안계상	양희종	윤순희	이범재	이자현	장명옥
김기석	김상철	김원조	김주택	김홍재	박상수	박진희	서정철	안동권	엄석호	이광재	이병선	이장환	장철주
김대연	김영균	김윤성	김창섭	김흥수	박수영	배충호	성태훈	안예신	오진석	이광출	이상부	이재명	정미화
정영수	최대현	한정기	홍상익	정진철	최두진	허 용	홍익희	정혜정	최윤기	허종규	황선관	조인자	최재웅
현용구	황성권	최낙원	한윤배	홍경선	황인성								

1975

강미경	궁광균	김상성	김재남	김 찬	남철희	박인홍	서석경	송병헌	오영근	윤이병	이근석	이성희	이종호
강태오	권구행	김영덕	김종년	김해숙	노일균	박창경	서성철	신민철	오영발	이경숙	이박승미	이영숙	이창수
강태진	권용집	김용식	김종삼	김형제	박만석	박 활	서성태	신태순	왕시온	이경애	이상욱	이우신	이혜정
공해수	금병흙	김원필	김준간	김홍근	박서구	백인근	손용강	안계정	윤여만	이경철	이석종	이정영	이훈철
곽경호	김광선	김원하	김준수	김 훈	박승룡	변영후	송명호	안광일	윤여성	이규영	이성욱	이정향	임동철
임장렬	정구석	조석태	최창규	허 민	장성덕	정덕관	진병욱	최현건	전기순	정성균	차정희	하영욱	전신영
정진국	천인경	하정국	정경원	정형순	최명룡	한상희							

1976

강석호	곽창호	김동성	김이곤	박돈영	박원근	변태기	성기준	양귀선	오한수	윤해관	이종민	임수택	장 권
강신화	곽희윤	김병호	김인희	박문수	박윤식	서경석	송왕석	양시진	우남익	이강식	이주우	임 원	장인탁
강재욱	구광열	김상겸	김종수	박세민	박혜연	서일성	신 영	양창현	유영동	이규인	이희곤	임인숙	전명훈
강준영	권영훈	김성민	김태성	박영우	박희권	석효성	안경숙	여춘구	유영륜	이명구	인병태	임준식	정규엽
고관규	권오진	김원호	남궁단	박영진	배현수	선우건	안영욱	오익희	유철영	이상헌	임규인	임채호	정기영
정상욱	주경윤	추교인	허병열	정원돈	주시량	하영대	허상순	정인숙	채승곤	한광섭	홍성화	정충교	최동익
한광식	홍승필	조종관	최영길	한영기									

1977

강지현	권용석	김명철	김양호	김은기	김형기	류현규	백승면	변희왕	신민호	엄상용	유재준	이봉원	이용환
이천희	강창권	권택인	김문현	김 엽	김은중	김홍덕	마상영	백승호	성충훈	신유순	여상필	유정근	이승재
이원영	이택규	강홍모	김건영	김성원	김영삼	김종옥	남영우	문원상	변사근	손민웅	신재형	여진국	윤경진
이승찬	이인현	이향운	구본건	김군우	김성택	김은경	김준영	두정수	문일현	변선희	손영조	심경휘	오경익
이경희	이영근	이인형	이 현	권오기	김기태	김수봉	김은규	김태형	류석현	박완균	변창석	송현섭	양희섭
유규태	이금렬	이영호	이정규	임승주									
임영목	장윤각	정민식	조현재	최영곤	현인규	임영선	장재원	정인영	주준태	최창수	홍정만	임중빈	전두현
정흥기	최명희	최희동	황양희	임효상	전정구	조기동	최상열	한윤식	황 찬	장세현	정기식	조상근	최상철
한현수													

1978

강근호	권익현	김동우	김영목	김진홍	김현주	맹정호	박성기	박지영	서동혁	신승기	오세형	이수만	이재성
이지세	강석규	권태경	김영환	김영찬	김창오	김홍배	문영주	박성우	백승헌	손성태	신용민	유규찬	이수원
이재연	이지홍	강양구	김경환	김승호	김우성	김철민	김 황	박명현	박영배	백신영	송주호	양문수	윤재근
이영찬	이재원	이창원	권순용	김관식	김시영	김정언	김태중	나웅길	박병로	박 윤	백종남	신동진	양학림
윤종현	이용수	이재현	이창위	권오승	김덕용	김영대	김지현	김 택	남정욱	박병찬	박인종	변창범	신만균
엄상인	윤주성	이은성	이종항	이종희									
이현상	장광필	정낙근	조성한	최재철	황원철	이혜선	장찬익	정옥배	조현동	최창호	이희돈	전동현	정우영
채기석	추현석	임경구	전상배	정인균	최근호	허익현	임장균	정길화	정호진	최동준	허 정		

1979

강일갑	김규영	김병기	김윤구	김진형	남진희	문성식	배 용	손장원	심대식	원재홍	윤종현	이수열	이원혁
이종광	강종원	김기평	김석란	김윤태	김창식	노명섭	문성애	서경태	송영봉	심 호	유명관	윤희영	이승범
이유범	이종민	고경일	김명보	김영서	김인재	김현숙	노상환	문준용	석보라	송재규	안홍섭	유윤재	이광우
이영준	이윤희	이종훈	권영태	김명식	김영태	김자경	김홍광	마민환	민연기	석진범	신동식	안희종	유재신
이석주	이용식	이은석	이진혁	김경천	김범일	김원태	김재기	남미호	맹일현	박영만	선동규	신준현	오민석
윤영현	이섭영	이원중	이정자	이한철									
이호승	장성룡	정태영	최무영	한영일	이흥근	장 유	조남주	최성렬	한중수	이흥식	장현리	조성래	최은태
이 훈	전한건	조홍식	편도욱	임성식	정일균	차영창	하강수						

1980

강필운	김대진	김부례	김승기	김철희	김혜정	노재균	박규진	박용수	박효영	송두석	송은재	엄지영	유남재
윤철혁	고수일	김대환	김상률	김원석	김태호	나기성	류재천	박기수	박용호	배윤탁	송병선	신재철	오병태
유영자	이건수	고재호	김동석	김석주	김인혁	김현식	남 용	류창옥	박병준	박윤하	백광현	송세환	신정환
오태균	유왕무	이 경	곽경수	김동윤	김성태	김장환	김현철	남주현	문양수	박상주	박재홍	서강만	송윤근
안종수	오태균	유재찬	이경욱	권세환	김병욱	김성호	김재훈	김형간	노대우	민경선	박성래	박채연	서원석
송윤재	양용승	오학석	윤석원	이계웅									
이광현	이상재	이은길	이정범	임성주	장주명	정병희	주광점	최경섭	최만열	최창원	한정수	황선우	이남식
이석기	이인우	이종석	장경식	전혜찬	정중식	지선경	최규선	최문선	최형진	허 경	황승연	이도철	이수응
이장화	이종섭	장명수	정관성	정현태	진영주	최기오	최병수	최희석	홍상진	이두희	이승호	이재현	이창환
장선욱	정대성	조성권	진재우	최낙권	최선기	하정훈	홍종애	이상용	이용희	이재훈	이철민	장인희	정민태
조태용	채성희	최두명	최종호	한인호	홍현철								

1981

강익현	고현수	권오국	김선광	김원장	김정하	김진풍	김형식	박경미	박성구	박정선	변재봉	서철주	송하룡
고규선	고호준	김경남	김소모	김인근	김주석	김진한	김형태	박문수	박성수	박종두	변제호	선홍준	송형민
고상환	구인회	김기현	김영덕	김일수	김주언	김창환	김홍범	박병건	박순규	박종욱	서동준	소영순	심상걸
고영일	권미자	김기현	김우영	김재수	김준용	김철환	노승범	박병욱	박승인	박혜련	서병재	손윤락	심상현
고정문	권순명	김명희	김우진	김정탁	김지훈	김향중	문기정	박병주	박익준	변인희	서인철	손해홍	심재은
안기철	양기택	우형강	윤재선	이기영	이병권	이복남	이승준	이제국	이철희	임두진	장현수	정영진	정한수
안동호	여운선	유지학	이강제	이덕우	이병일	이상찬	이용우	이종득	이학영	임상래	전계호	정윤수	조광호
안민식	오경석	윤상권	이강혁	이미경	이병준	이상천	이원욱	이진형	이행기	장재석	전만식	정인선	조구호
안석원	오병열	윤세근	이관영	이미경	이병철	이성우	이은송	이창고	이형종	장지호	정동시	정재욱	조정국
안제천	오상훈	윤인숙	이규익	이병국	이병호	이세곤	이정연	이창호	이희욱	장현규	정병관	정준수	조창제
조희제	최명식	최조홍	한상윤	홍종빈	황태준	주이관	최석영	최종식	한수용	홍창원	최 경	최승호	최해식
한종연	황병대	최기준	최영진	하성우	한준구	황상주	최만욱	최재근	한상석	홍기찬	황인준		

1982

강미선	고문석	김기석	김미자	김석만	김순희	김유양	김점숙	김태완	김호선	문창익	박무중	박학순	변선영
강성필	고한규	김기욱	김민선	김선태	김승찬	김유학	김종우	김택중	김효식	박강욱	박상권	배용한	서갈원
강영권	고희상	김기중	김병섭	김성권	김영현	김윤태	김주리	김형규	남관우	박경식	박시형	백낙연	서영만
강인구	공자학	김동영	김상일	김수곤	김완목	김인숙	김준성	김현주	마경훈	박명동	박영훈	백종만	서효신
강태원	권미경	김명환	김상호	김수진	김유산	김장규	김치현	김형수	문정희	박명환	박인승	백대식	석영인
성동현	송한근	신홍섭	양원용	우채석	윤남태	이경희	이봉근	이세연	이정행	이해원	임병섭	장재희	정재걸
성찬모	신경수	심신희	양진성	위중량	윤석송	이광재	이봉수	이영택	이중숙	이현주	임찬혁	장 현	정태화
손용진	신도성	안현식	오미숙	유영초	윤성국	이광재	이상욱	이재호	이중헌	이홍제	장석현	장혜경	정호영
송병도	신애경	양명주	오승면	유이선	윤진성	이덕순	이상익	이정대	이준구	이화신	장세철	정도성	조성춘
송용렬	신종임	양승관	오창섭	유현덕	이강국	이복희	이선영	이정욱	이태권	임금연	장영철	정성희	조신호
조영두	주중을	최영정	최해역	홍금표	조정래	진숙정	최왕성	추원훈	황병수	조정욱	최규서	최윤주	하정용
황순양	조정태	최선철	최정석	한창건	황진근	조희욱	최 영	최준수	허승희				

1983

강한신	구종모	김미랑	김봉조	김용우	김정라	김진수	김형주	남세웅	문병언	박명구	박은주	박흥표	서정미
계동덕	권태수	김미선	김성숙	김용운	김정록	김태형	김홍민	남승환	민선희	박명환	박전규	방한욱	석호경
고천애	기연희	김미영	김수영	김운철	김정희	김택삼	김희정	노국진	박경원	박민영	박정희	백정숙	성낙청
곽동규	김경주	김보경	김안철	김원중	김종현	김현준	나송주	노순래	박경희	박숙희	박종렬	변재숙	성초림
곽신영	김동준	김복남	김영동	김윤하	김진기	김현진	남기홍	모미숙	박노욱	박영실	박창욱	서애경	손주찬
송상길	안상봉	원영춘	윤민용	윤진숙	이금숙	이명남	이상진	이은경	이희락	정동호	정대용	조희열	채다미
송창근	양윤정	유상철	윤부영	윤태봉	이기윤	이명석	이수억	이은정	인종훈	정미숙	정희상	주성욱	최권준
신경호	양창호	유수호	윤인석	윤태현	이동호	이무영	이어연	이주령	임송화	정미화	조대홍	차석진	최두철
신민숙	우미경	유점승	윤정혜	이강석	이득형	이병근	이옥주	이진행	임효준	정은숙	조정우	차승택	최명욱
신선희	우윤순	윤경욱	윤준노	이규호	이만희	이상재	이윤열	이혜영	장명호	정종화	조현철	차화순	최세창
최 숙	최현실	한경주	한원덕	황태규	최은순	최현찬	한경희	홍성방	황한주	최철주	최희승	한국진	홍성호
최지갑	하상돈	한백건	황경희	최치호	하윤수	한상순	황성봉						

1984

강병진	고현라	김경희	김동철	김선규	김수경	김윤옥	김정민	김진선	김현주	나숙영	박순녀	박홍찬	손마카엘
송두호	강석오	권광환	김규희	김미정	김성곤	김수일	김은미	김정은	김천호	김현태	마귀석	박익환	서동진
손병훈	송인회	강재구	권순일	김대복	김민숙	김성빈	김수향	김전산	김종식	김태근	김형민	모태연	박종윤
서은영	손상섭	송진화	강대식	김경식	김대진	김상옥	김성숙	김순식	김정곤	김종호	김학배	김형일	문영주
박천광	서정탁	손정원	신경현	고재학	김경철	김동균	김상철	김소일	김용섭	김정근	김준석	김현국	김홍선
박세화	박해진	손기영	손화영	신용현									
신종민	양의동	엄진호	오창석	유진권	윤화중	이명숙	이영민	이재완	이주하	임재익	장운선	정기섭	정한욱
조인혜	안광조	양재선	오대환	오현배	유진상	윤희상	이미자	이영실	이정영	이중근	임종진	장효진	정미경
정해경	진정님	안선희	엄대식	오선숙	우지민	윤준식	이규재	이민규	이용우	이정임	이혜영	장병희	장희숙
정연국	조동우	차순옥	안영기	엄영희	오세영	유윤란	윤준혁	이규진	이상성	이윤정	이정해	이희성	장세환
전인석	정인순	조승무	최경호	양은석	엄용철	오재구	유재분	윤호용	이길수	이성복	이은추	이정희	임병직
장수연	정강현	정진기	조용노	최덕균									
최승구	최원식	최향숙	허영석	최영순	최인창	최현묵	최용일	최재숙	최형실	최우영	최재필	한병희	최원식
최정호	한성우												

1985

강경희	고정철	김길년	김명균	김석봉	김영석	김은실	김정진	김현석	노은영	박길한	박순봉	박준희	박철재
서영규	강덕구	권봉철	김대기	김명림	김성재	김영섭	김은정	김준한	김현태	노정용	박민식	박시욱	박진선
박해숙	성대희	강민신	권혁주	김도현	김미선	김성환	김옥수	김재관	김지향	김혜화	도수령	박병철	박일수
박진한	박호진	손미란	강희전	김기석	김동석	김상휘	김수영	김재미	김정오	김철호	김효순	류경식	박병후
박정식	박진희	백은주	손상원	고대곤	김기연	김동희	김서은	김수중	김용우	김정옥	김한영	김희상	류혜영
박부영	박종호	박창원	서동수	손인숙									
송의준	심영식	양승열	윤상태	이경숙	이만재	이선희	이영순	이인원	임경빈	전춘우	정성희	조민상	조현진
최규용	신상윤	심우석	양승표	윤용옥	이계현	이문경	이성수	이월중	이 장	임경완	정경오	정유석	조영진
주 랑	최봉욱	신성룡	심우섭	여운홍	윤일노	이동복	이민복	이수한	이은중	이정선	임규인	정기춘	정의범
조왕덕	진현주	최상규	신은주	안영숙	오재우	윤재현	이동천	이석광	이승준	이은해	이 진	전기주	정명호
정의선	조창현	진형선	최상영	신훈식	안용화	오재형	이건천	이동한	이선희	이양희	이인수	이한성	전용갑
정병학	정재하	조철환	천태조	최상철									
최순영	하정원	황인혁	최승철	하현정	황진규	최진영	한동구	최현숙	한재일	하윤수	허혜경		

1986

강득구	강윤경	곽재웅	권운선	김근준	김성영	김윤철	김정철	김학재	노치성	문익환	박도석	박인성	박창기
백의현	강명아	강철원	구자형	권태원	김문기	김성호	김이화	김준철	김현석	류미정	문차순	박명기	박일묵
박철연	손경례	강석환	강혜숙	권건옥	김광수	김민희	김수겸	김재빈	김지일	김형식	류춘옥	민원정	박상현
박재욱	배경원	손영주	강승우	고영훈	권대진	김규식	김삼지자	김승만	김정건	김지현	나기열	문성영	박규식
박소영	박진홍	배미순	손재천	강신형	고은영	권오영	김근범	김상연	김용선	김정범	김태원	노종은	문은경
박남현	박수희	박찬길	배재현	손형주	송준창	안성영	오길준	윤성호	이경환	이상수	이성환	이창식	임영재
전희중	정운국	조병철	채정규	최준호	송태영	안재용	오상철	윤형섭	이길재	이상현	이에스더	이태곤	장경희
정경호	정종혁	조성준	최동현	최지연	신권일	안진용	오상환	윤홍근	이동욱	이상희	이용호	이희진	장성원
정민구	정준성	조태충	최미옥	최진석	신성칠	양광모	용운호	윤화현	이문영	이성열	이정환	임동명	전은란
정용선	정치광	조현준	최재영	최충녕	신정매	양중권	원기연	이경영	이병곤	이성원	이준수	임양배	전은희
정우원	정회영	지양원	최정환	한임동									
함영춘	허계순	황 영											

1987

강금숙	권상기	김대은	김민석	김세라	김재선	김 진	김효순	노 진	박동일	박인숙	배상희	서미숙	성석현
강길상	권은자	김동기	김범익	김세오	김정기	김진태	김홍섭	명수진	박상연	박주양	백상원	서병덕	송민중
강신재	권준구	김두한	김병권	김승민	김종숙	김진희	김희선	문종두	박상호	박찬득	백종현	서성완	송영석
강양수	김경수	김명수	김상훈	김영찬	김종환	김철동	김희중	문지원	박성린	박태규	백종호	서현배	송윤정
고지현	김광희	김미정	김선희	김재근	김준서	김현석	남재광	박경희	박용태	박항미	사공정룡	설갑수	송현주
신동화	오승민	유석우	윤정임	이동환	이연진	이유미	이지연	이형진	전성옥	정경숙	정진웅	조언영	천병규
신영연	오해균	유수영	윤창근	이미행	이영남	이윤아	이태진	임찬규	전용준	정동하	조규남	조혜진	최병화
신현자	오현수	유조혁	이광수	이성주	이영철	이정림	이태호	장규원	전현숙	정상준	조남경	차미경	최수동
안기철	왕종표	윤길호	이광아	이세원	이옥상	이종익	이현정	장기중	전형호	정재훈	조상철	차승은	최순호
안명숙	원범희	윤여웅	이동신	이수진	이용욱	이준희	이현철	장홍선	전혜원	정정심	조숙영	채경옥	최승호
최재용	허연옥	홍선혜	황승준	최태은	허장열	홍순복	황정연	표진수	현지연	홍승일	황현규	한경훈	현지혜
황병순	한미경	홍기윤	황복희										

1988

강미이	구본승	김명선	김승범	김익연	김철현	문윤희	박선화	박정희	서선아	신동은	신화석	오원진	유효경
강진구	구제상	김범용	김유리	김재성	김효선	박공윤	박성현	박태성	손지연	신명자	양성순	오진탁	윤제용
강희숙	김나현	김부연	김윤재	김정현	나봉형	박기호	박순호	박태용	송은화	신명진	양준원	유영산	윤주한
고인경	김남숙	김성숙	김은진	김주경	노형욱	박미선	박영미	배응환	송화정	신사강	엄태우	유재분	이근석
고종광	김도훈	김성주	김용석	김준현	도현탁	박상현	박영수	변현철	신동숙	신상우	오경희	유정은	이명숙
이명호	이순옥	이정실	이태영	장민식	전경아	정영준	조수진	최경선	최재수	최혜선	황익갑	이상우	이애경
이정화	임성옥	장운석	전은경	정은영	조연하	최동하	최진옥	한해룡	황지혜	이성배	이영민	이준호	임익수
장윤선	정성현	정창준	조종명	최성은	최향석	황민준	이성현	이윤정	이진우	임진규	장인숙	정수경	조대철
조현란	최승희	최현만	황부영	이수연	이은경	이진호	임재권	장택수	정영일	조동수	최가원	최인경	최현준
황승훈													

1989

강신욱	권오설	김강필	김 선	김순철	김인수	김태섭	김혜진	박건희	박은영	서지연	신범진	양경석	유지숙
고경희	권은영	김경호	김선경	김시형	김재명	김필주	김희수	박다로	박은지	손재홍	신창섭	양기영	유태선
고준완	권지연	김경희	김성조	김아르나	김재용	김현실	민승환	박상현	박재영	손준서	신흥연	양태순	윤양우
곽재웅	권해경	김규돈	김소영	김영환	김준식	김형승	민정홍	박성수	박재현	송성원	안재연	엄사용	윤장우
구형철	권혁빈	김길선	김소현	김은경	김지영	김혜경	민훈기	박영일	박혜진	송희진	안호창	유성렬	이경애
이동섭	이지연	임병현	전형진	정숙엽	조규서	채영미	탁미영	현창웅	황선희	이성한	이지은	임주인	정경옥
정영아	조영재	최문숙	탁부경	홍래형	이영석	이태일	장지선	정성미	정 철	조재욱	최승린	하정미	홍수연
이영주	이현철	장현철	정성수	정형주	조주연	최용준	한정석	홍희진	이유진	임경희	전용수	정수진	정호석
차윤명	최인정	한정현	황두연										

1990

강상욱	고슬기	김경일	김명욱	김소연	김은구	김현수	박상현	박화섭	신소영	양승우	오승성	윤경주	이원탁
이준수	강성림	고효욱	김경희	김상수	김수진	김은주	김희정	박성주	배선중	신희경	엄태성	왕경연	이동걸
이윤현	이지우	강성욱	공성철	김고금평	김성채	김승경	김은주	남상훈	박성훈	서상현	심보국	오기환	우경희
이문현	이은정	이창근	강승희	권명중	김기현	김성호	김승식	김직수	문병선	박순향	서영탁	안남희	오달진
유동재	이선자	이재원	이철희	강현기	권상미	김대용	김소연	김원석	김태운	문찬박	박진수	송경혜	안혜정
오세웅	유은정	이소영	이정희	이한경									
이한선	임해수	정윤미	조재훈	최병준	최지영	한상준	홍상욱	황응선	이현주	장지영	정일용	조 현	최성용
최호식	허남숙	홍석균	황인일	임경미	전주예	조상현	주성묵	최수강	최흥태	허병희	홍순규	임주성	전현정
조은영	천명이	최용석	최희정	허윤석	홍순영	임준묵	정경미	조은진	최고석	최정원	하상섭	현혜정	홍승현

1991

강근모	강혜경	권 선	김동민	김인식	김지원	김창하	김현정	류지현	박선아	박재상	배수현	송지현	오상은
유수아	강민정	고지연	권세일	김상명	김정미	김지윤	김추성	나기태	문경하	박선영	박제원	배혜진	신의창
오정민	유재영	강소연	공순태	권영복	김성훈	김종현	김지형	김충순	남상봉	문정화	박설웅	박준혜	백성현
안승기	오지영	유호근	강의석	구지영	권중구	김승진	김종호	김찬우	김태훈	노연주	박상규	박식원	박지혜
송도준	양지성	우광훈	윤기웅	강지웅	권나현	김도현	김유경	김준영	김창수	김현수	두일형	박상혁	박윤주
박홍규	송인재	여규림	원현진	윤변옥									
윤진영	이서규	이영준	이혜영	장세준	조소영	조정현	최보근	최윤희	한재범	홍기룡	윤진용	이소영	이정훈
이화준	전중호	조여경	진영민	최상연	최은주	한혜진	홍상희	윤희원	이승연	이청엽	인현영	정광복	조은정
차경환	최용순	최지영	한호진	홍지훈	이기세	이안순	이현령	장귀임	정은영	조인묵	최경관	최웅필	한영옥
허광조	황경일	이동준	이영섭	이현아	장성수	조병령	조재범	최 금	최원식	한은희	허소영		

1992

권순덕	김병정	김윤희	김준우	김형욱	민동선	박세연	박진출	서정순	심민규	원은재	윤영두	이동훈	이보나
이운형	김경식	김선민	김은영	김진희	남윤희	박규경	박종현	박현주	서혜라	안성우	유용목	윤영의	이명희
이상윤	이유경	김남규	김수련	김자강	김향모	남준석	박상민	박지연	방성환	석재영	양창훈	윤경아	윤현섭
이미경	이승룡	이인선	김미라	김순배	김정현	김형근	류성진	박상호	박지영	서병진	성석용	오중현	윤기웅
이경은	이민우	이승찬	이재옥	김범현	김용인	김주미	김형기	류흥열	박성관	박진철	서윤정	신경훈	우성윤
윤선영	이경철	이민호	이영주	인동호									
임병하	전유광	정재근	조윤정	진승은	최용근	하세현	홍성광	임원배	전천수	정찬도	조장연	진훈주	최우영
함선미	홍성민	임은정	정규창	정화영	주희정	최경선	최인영	허상환	홍 철	장희경	정덕래	조용태	지영길
최선정	최정완	허인숙	황보화	전미숙	정영숙	조우현	지재희	최연희	최필수	홍석운	황선영		

1993

강정아	김기수	김병호	김윤희	김종우	김현섭	박관식	박영작	박지은	배진아	심정은	여진경	윤대규	이동혁
이시은	고승우	김문성	김상현	김은현	김주현	김현지	박민우	박은진	박지현	서주희	안상미	오승훈	윤여원
이병렬	이영빈	고이양	김민영	김세욱	김인욱	김지연	김형주	박선택	박재은	박진백	손아영	안종도	우희야
윤지하	이상준	이영훈	김경림	김민지	김연재	김민중	김진우	민동섭	박성민	박준식	박찬진	신정민	안형욱
유승민	윤지현	이소영	이용진	김경섭	김민희	김영주	김정수	김철중	박경민	박영순	박지연	박철우	심병진
엄효섭	유재성	이강우	이승준	이웅세									
이일섭	이주혜	인현진	전은정	정판진	조준희	최정설	허수련	황혜민	이정훈	이주희	임지혜	정경화	조범식
진 혁	최현정	허 홍	이종근	이충언	장언서	정은미	조영상	채명성	한성국	호경미	이종윤	이현희	장일동
정지성	조은희	채혜정	한성제	홍영지	이주철	이혜수	전승진	정진수	조일래	최영하	한혜원	홍정기	

1994

강석우	기정언	김윤아	김정호	김혜자	류미나	백재진	송형진	안은희	엄성민	유삼수	이경권	이연경	이지수
강영희	김격춘	김은정	김종산	김혜진	박인천	서경희	신미영	안지윤	엄의현	유성완	이관희	이예리	이지훈
경선영	김문정	김인숙	김주현	나영화	박철우	서민아	신재용	양임경	오석호	유지형	이병윤	이재민	이진영
고광필	김성수	김인철	김철희	노우현	배윤주	송명진	신혜진	양정우	오성환	유혜진	이석은	이정은	이창희
구본산	김예민	김재혁	김택희	류근형	백승연	송정아	안옥현	양종일	우유선	윤영미	이소윤	이주승	이택선
이혜연	정재원	조일아	최윤희	추우승	황희숙	장재영	정희원	지연주	최인영	추전길	장 훈	조성민	차치호
최한솔	하윤석	정성엽	조용인	최명호	최혁준	황성희	정수안	조용진	최수연	최훈원	황영준		

1995

강인혁	고윤정	권혁진	김보영	김연희	김재민	김지나	남궁곤	문현주	박은선	박지하	서수정	손종욱	신연식
강지훈	고은설	김금수	김상현	김영록	김재일	김지은	남미진	민복기	박은주	박철희	선문공	송인준	신원진
강희정	곽경환	김동빈	김소영	김완룡	김정우	김진호	류채진	민희정	박정민	박홍근	설지희	신대규	신현수
고무정	곽현주	김문수	김수정	김은영	김정인	김현정	마성환	박민영	박주영	박희성	손수연	신상민	신효성
고미진	권소현	김미선	김여진	김은혜	김준영	김화희	문경선	박성일	박준영	반지현	손성훈	신승용	심규호
심상호	양정윤	위정욱	이경은	이보행	이재진	이창원	장지영	정승희	조혜원	최윤선	허윤희	황소준	심소희
양태연	유설희	이규하	이석재	이재환	이현석	전민정	정윤교	좌진아	최재직	현선영	심승규	오 석	유자원
이동진	이선희	이정민	이희숙	전희경	정택수	진명신	한옥현	홍설영	안유경	오영석	윤기영	이동훈	이용규
이지영	이희자	정경화	정하연	차도윤	함정호	홍옥길	안재환	오은택	윤미희	이범수	이용재	이창열	임정구
정광식	정혜인	차승헌	허성희	홍주희									

1996

강민성	고성오	김규배	김은철	김진경	김현승	남강현	노연주	박민아	박주연	배지은	성원희	송혜연	안우성
강인규	고의량	김담희	김정현	김창래	김혜선	남규호	도진욱	박소영	박 준	서정혁	손소영	신성호	안재희
강재상	권수현	김미경	김종락	김태길	김효은	남성희	류광욱	박순영	박준량	서효원	손요한	심윤희	양미라
강주희	권오승	김민정	김종락	김태연	나유미	남원준	문미경	박용순	박지영	석정훈	손주영	심정석	양성윤
강지나	김건식	김성식	김주한	김해경	나호준	남재미	문소정	박정모	박화영	선지현	송시현	아이다겐따로	
엄진현													
염기동	유정아	윤영민	이동석	이상민	이재혁	이현아	임수현	장혜진	전혜원	정지경	최명훈	허윤정	홍현정
오민선	유정화	윤인섭	이명주	이상희	이정은	이현주	임종우	전성훈	정도희	조마리	최성혁	홍두만	오세혁
유정훈	윤호진	이미정	이소정	이주영	이호진	임채욱	전옥량	정수영	차순필	최우석	홍미진	오준호	윤서연
이경혜	이범수	이수현	이준혜	이희연	장석진	전용찬	정신영	천상현	하승범	홍주영	우정현	윤성무	이나영
이병아	이승희	이지연	임성재	장연희	전지현	정은선	최경균	한수민	홍채욱				

1997

강유선	곽원경	김경하	김마르	김보연	김승현	김주열	남현욱	문주석	박제현	변희정	손민희	신현민	우한수
강은진	권순옥	김경현	가리따엘리사벳	김사라	김연희	김태욱	김태욱	류경아	박경란	박주영	서범석	송화인	안영식
원희경	강중대	권지연	김경희	김민형	김상윤	김유진	김학현	명재경	박수지	박지인	서수영	신견식	안현민
유나영	고건영	금향기	김규복	김병수	김성식	김재권	김현수	문경욱	박 원	박진경	성신우	신수정	오규영
유승훈	고미옥	김경하	김규진	김보경	김수희	김제나	김현우	문은규	박율찬	백윤숙	손광득	신지숙	오창환
윤종철													
윤지연	이세운	이승준	이철경	임진웅	전우현	정용준	조석태	천종호	최자영	한여명	황정한	이규리	이소연
이윤상	이춘성	장영환	전현진	정은경	조성일	최동민	최지은	홍성구	이금수	이수영	이정심	이호주	장정우
정동현	정은주	조풍연	최상영	최혜선	홍승언	이상민	이수현	이주훈	임인정	장홍철	정상구	정은주	조홍탁
최소영	한명미	홍우철	이상현	이승재	이창수	임정희	전석우	정성욱	조남일	주혜연	최용준	한양희	홍지신

1998

강현아	김남희	김병관	김신연	김재성	김진오	노옥주	박 성	박진용	송영하	신정원	양승현	윤원주	이동은
이성은	고은애	김동연	김석원	김연선	김정훈	김진우	도왕현	박성진	박효일	송유정	안선민	엄승훈	윤혜림
이동재	이승익	곽승훈	김동은	김성희	김영훈	김주아	김채리	도현숙	박용희	사공준	송진희	안소애	엄혜주
이귀남	이병현	이승훈	권승현	김문영	김수산나	김용희	김주희	김형남	박미영	박종환	서수명	송혜정	안영미
연병옥	이길호	이선정	이영재	김광오	김미지	김승훈	김은영	김지훈	김휘원	박상식	박지환	서지원	신우승
안은미	우형민	이까롤리나노르마	이선희	이우정									
이유진	이제승	장재원	전홍기	정종화	최교욱	추현태	황은숙	이재림	이현기	장재혁	정용근	정한나	최보금
한지연	황지원	이재민	이현아	장제환	정은화	정현수	최현민	홍성진	이정지	이희두	장지연	정제원	조동원
최현준	홍혁준	이정훈	임형남	전은주	정종엽	조성오	최현철	황기섭					

1999

강다연	공희영	김기흥	김명은	김상윤	김수영	김인상	김제민	김태희	문수연	박선영	박시현	박 혁	서기석
서희석	강보경	구자한	김나영	김미연	김성중	김유정	김일도	김주표	김한나	민지영	박성준	박은경	박현지
서소연	석지현	강정현	구학모	김도경	김민수	김세규	김유정	김재희	김지은	김현정	박경희	박소윤	박정하
박희원	서승건	성민현	고영진	권성재	김동성	김민호	김수민	김윤나	김정경	김지형	김홍연	박광일	박수아
박좌용	배남수	서연희	송미연	고윤혜	권소이	김 립	김보영	김수아	김윤정	김정현	김태경	류혜진	박군탁
박수이	박준형	백연희	서현덕	송민수									
송연정	안나리	여민희	유정화	이경임	이미화	이소영	이장재	이창훈	이훈기	장용석	정 경	정주원	조세경
차지훈	송유경	안태진	오수연	윤승진	이능규	이상경	이수영	이정은	이 향	임유경	장희경	정동혁	정필원
조유희	최마리아	신윤덕	양세종	오효정	윤형남	이동건	이상준	이승아	이주영	이현미	임재금	전수연	정명진
조계홍	조윤아	최예진	신주명	양태규	유동현	윤희원	이동우	이선준	이안나	이 준	이현주	장석원	전인식
정민경	조남윤	조충희	최윤영	심수연	엄진희	유 웅	이경신	이명신	이성경	이은경	이지수	이혜란	장승연
전효동	정슬기	조덕형	진은정	최지원									
탁강훈	하정희	한남희	한성훈	황지환									

2000

강민희	김미라	김민희	김수정	김용래	김태영	김혜연	모수미	박순희	박태준	서정현	송정근	신유리	양형석
오영란	고향진	김민관	김민희	김영백	김일영	김현민	김혜정	문규홍	박영진	박한나	서지현	신기은	신종윤
양희환	오인혜	권혁재	김민영	김선민	김영원	김정희	김현정	김호성	민인희	박유미	배주영	서혜진	신동빈
신혜원	엄주희	유 경	길호영	김민우	김선진	김영중	김조앤희연	김현진	노태경	박병우	박유진	백주예	
손정인	신동섭	안정수	여상현	유기욱	김도형	김민지	김소록	김옥길	김지영	김형아	도현정	박성희	박종원
백찬규	송수연	신옥희	양지민	오상은	유지원								
윤 룡	윤현진	이성미	이우상	이준호	장우경	정명해	정정현	지주현	최인규	허윤정	윤병일	은세정	이수연
이우영	이진아	전금주	정순영	정한별	채건기	최지원	홍승현	윤보미	이길택	이영주	이인훈	이현경	전보영
정우근	조국희	천은정	하정우	홍정민	윤영지	이동은	이영준	이재호	이홍석	전혜란	정유진	조민경	최고은
한방석	윤지현	이민철	이예송	이재호	임다영	정담은	정인관	조영돈	최삼진	한정민			

2001

강우철	김광현	김수현	김은도	김현정	김휴홍	류영대	박민희	박인협	박혜진	설유진	송인선	안선정	양혜민
육혜련	강지윤	김규영	김신행	김은정	김현주	남성진	문미경	박새롬	박일호	방승도	성수영	신혜연	안소은
오상준	윤민화	강희환	김미경	김연민	김ிர랑	김혜경	남현정	박경우	박성호	박재홍	백정연	손민철	신혜원
아마구치유우야	오신석	윤정익	고창신	김민경	김영규	김정아	김혜진	단지영	박근영	박용찬	박정수	빈수경	
송문석	심혜연	양신기	원영인	윤지현	곽지은	김석영	김용인	김채전	김호진	라문정	박민규	박인범	박주영
석은정	송승언	안선영	양준영	유대원	이나라	이도진	이영훈	이지연	이희용	장현숙	정소희	조영후	조현정
지성은	한송희	홍상희	이상윤	이은경	이지영	임재웅	장혜림	정수현	조용성	조현준	최수영	한윤희	홍승범
이석찬	이은혜	이지원	임지민	장혜아	정순화	조윤정	조혜정	최윤석	함경범	황소라	이성원	이주진	이진호
장민경	정나라	정지은	조윤희	주소영	최정윤	함호진	황현정	이세경	이주현	이현진	장지영	정대호	정태석
조향숙	지선영	최태영	하나영										

2002

강성훈	구은경	권현주	김대수	김민지	김소형	김주호	김효연	문영준	박리사	박시환	박준형	배성호	서동준
강영근	권소연	김가영	김동욱	김선애	김예형	김준태	노신정	문지숙	박보람	박연경	박지원	배은경	서태왕
강지훈	권유현	김경원	김동원	김선희	김은진	김지영	라윤정	민재홍	박상미	박요한	박해미	백상하	손미경
강현주	권은정	김규진	김문수	김성현	김정남	김지은	마쓰에다	아쯔시	민혜정	박세준	박은희	박현아	변종은
송석주	곽금희	권혁환	김남순	김미영	김소정	김종석	김혜민	문미영	박가영	박수현	박재혁	박해은	서귀로
송화용													
송휘정	안소연	우민경	이가일	이동건	이승호	이주영	이채린	임은정	장예진	정장희	정형우	차미숙	최준식
신정현	안지현	유나래	이경아	이동운	이은희	이지성	이철호	임주희	전소영	정재화	조수진	차영준	최호수
심선미	엄태호	유태성	이규아	이미라	이재민	이지원	이혜경	장면석	전은영	정주영	조은영	최승제	한자희
심지현	오선미	윤명주	이규진	이선주	이재선	이지화	이홍주	장민진	정수경	정주혜	조재희	최유정	한주희
심현아	오창수	이가람	이규희	이성희	이종태	이진혁	임슬기	장연재	정유진	정현주	조현진	최윤정	홍윤혜
황인웅													

2003

강명숙	공채연	김다영	김민아	김성수	김수진	김정해	김지숙	남궁환	박건희	박신영	박주연	배수진	서하나
강보연	곽현규	김동수	김민정	김소연	김슬기	김정현	김지은	남주현	박경나	박연주	박하양	배혜연	신보경
강승진	구아미	김두나	김선행	김수빈	김신애	김주리	김환정	마은정	박민주	박연하	박혜원	서슬기	신선희
강형찬	권도형	김 란	김선희	김수연	김영은	김주은	김희재	명수진	박세영	박영웅	방혜림	서완희	신승환
강혜민	김나영	김민경	김성미	김수진	김재완	김주현	김희원	민경석	박신애	박재익	배근선	서지민	심은희
심준영	오유경	윤미선	이세미	이예다운	이정선	임상미	장서원	정선희	조지희	최예린	하동선	한지희	안은정
옥은실	윤준영	이순복	이은정	이창희	임소연	장수민	정우순	채안드레아	최유미	하세영	홍승혜	안진우	유현주
이데레사	이슬비	이은정	이희진	임유준	전주빈	정윤희	최선용	최윤정	하헤르만	홍예령	오부영	유희경	이미선
이승현	이인재	임경진	임화섭	전진홍	정은혜	최송애	최윤정	한무현	홍윤기	오승현	윤다니엘	이미주	이연주
이재기	임 구	장경진	정명은	조영곤	최시원	최충희	한미나	황선민					

2004

강문수	곽지은	김나래	김리현	김영아	김인혜	김하나	나은별	박민아	박신덕	박지수	백승훈	손승우	송휘준
강서연	권미정	김다은	김병주	김영인	김정수	김한울	류현주	박상우	박옥진	박지영	서경선	송동환	신 정
강승준	권영보	김대현	김수지	김옥경	김준성	김현진	문경아	박선우	박우현	박진아	서은주	송 원	안소희
강영은	권지연	김동건	김안나	김유미	김진경	김현진	문사랑	박소영	박윤빠울로	박하나	서주희	송혜리	안영신
곽주영	김경미	김두일	김애랑	김윤수	김필수	김호정	박근영	박솔예	박정원	박희탁	서현주	송호현	안진아
안태현	유선화	이경록	이병훈	이아름	이정아	임나현	장혜선	정서연	정승호	조현진	최상탁	한시훈	황규진
양하나	유원근	이규화	이보은	이원정	이준희	임성민	장화연	정성공	정지용	조훈희	최서영	허서진	황려운
어호연	유지선	이대호	이성혜	이윤희	이지은	임재원	전옥정	정성원	조소연	지 휘	최윤미	허지윤	오윤경
유진우	이미레	이세혁	이은경	이한솔	임지원	정다이	정성윤	조영주	진은영	최재철	현선영	왕 검	윤형석
이민재	이신아	이재중	이희재	임하윤	정 민	정수정	조우리	채상원	최재호	현지수			

2005

강 샘	김경민	김대원	김민희	김양훈	김지연	박경석	박지호	변선영	서수영	송한결	안상현	유광희	이나리
고석은	김경준	김미나	김보라	김영현	김화라	박보윤	박찬호	변소정	손정은	신명석	안소은	유효선	이대연
공새롬	김광현	김민영	김선주	김인영	김희원	박선홍	박태재	부혜지	손정진	신수림	안태운	육성훈	이성락
곽다미	김기현	김민정	김송이	김재훈	노태욱	박소담	박홍선	사희원	송상훈	신우정	연정화	윤이나	이송재
김가진	김나리	김민준	김수현	김준호	노현주	박우석	방희정	서미나	송아람	심호섭	오민나	윤지숙	이수연
이수지	이장섭	이지은	임수정	장윤미	정지선	조혜균	최주은	한서정	이슬기	이정행	이지혜	임지은	전성환
정혜련	주효진	최지현	한성욱	이승진	이정희	이진용	임한혁	전영준	정희영	지현아	하나탈리아	허지인	이윤지
이주영	이진주	장문선	정다혜	조윤지	최라운	하주원	홍민경	이인혁	이주호	이현석	장선미	정아름	조한나
최정인	하주형	황주영											

2006

강은미	권태정	김봉현	김소정	김윤경	김지연	도예원	박상철	박준이	서효언	송상엽	엄준형	유예린	이상화
이승환	강혜진	김도익	김빛나	김시은	김인애	김치남	류희정	박선주	박진아	선가영	신승용	염보규	유재환
이수민	이아름	고재성	김 란	김성민	김연주	김재한	김혜린	문세완	박유미리	방승태	선경표	신종석	오윤아
윤서희	이승로	이영협	권나영	김무룡	김성은	김예림	김정인	김홍경	문영준	박정인	배수호	설은주	심기선
오현진	윤용일	이승조	이유미	권진영	김민성	김세희	김우경	김정훈	나건웅	민승연	박주영	서윤정	손유나
양주현	유경리	윤지은	이승준	이윤경									
이윤희	이진호	전민정	정현희	진아람	최은지	최혜미	이윤희	이해연	정민애	정혜림	진유화	최준원	한혜정
이정민	이현준	정우현	정효선	최영민	최한별	허인선	이정성	임상태	정종원	정희정	최예은	최혜리	허정용
이정훈	장민지	정현경	조윤후	최윤정	최혜리	홍민호							

2007

강민욱	고수현	김도경	김세진	김재덕	김준경	김혜림	박성원	박지은	배현우	손주희	안수진	오주아	이동훈
이실비	강성문	권재민	김민혜	김소현	김재현	김진규	나인영	박수연	박진희	백효진	신도원	양선용	유재민
이민주	이우석	강세훈	권재은	김상원	김아리	김정균	김태중	목상화	박영수	박현진	서동주	신세영	양천영
유재준	이민하	이은영	강은경	김균택	김서정	김예지	김정열	김현희	박대성	박은서	박현진	성규범	신유리
여은우	유 진	이선영	이은혜	경가영	김나연	김성우	김은호	김주옥	김형주	박상우	박종일	배진남	손소담
안동근	오윤희	윤세영	이소윤	이재민									
이재우	이혜운	임용묵	정신옥	조두리	최수연	홍주연	이재현	임국봉	임정택	정재호	조성은	하소정	황대순
이재현	임나연	장대진	정종윤	조유라	한선희	황유나	이주화	임동현	장보람	정지수	채윤태	홍성은	황현지
이지수	임미송	정나영	정하늬	최상아	홍영실								

2008

강민석	고봉균	김경현	김범규	김원모	김 진	김희정	문지애	박유현	백민지	송지애	안우영	온지현	윤인아
이수현	강보영	공아람솔	김나현	김선미	김은진	김진경	도진목	민현희	박은미	서인정	신송희	안지은	왕아미
윤호수	이승주	강상미	구민성	김리라	김성엽	김이레	김태형	동지훈	박선아	박재홍	서한동	신안젤라	여윤주
왕 조	이규재	이승준	강주원	권지예	김미선	김수연	김자영	김현경	류연지	박수현	박철훈	손민철	신우진
염상화	유인송	이루리	이영재	고경주	금동현	김민주	김여은	김주연	김현성	문재식	박승모	박종서	송유진
신현지	오용구	윤소라	이상진	이유리									
이재현	이하나	임현승	장지윤	정실로	정진우	진소희	최서용	최호진	황은지	이주연	이현아	임형석	장현암
정영준	조영동	진은혜	최성지	한정아	이준호	이현정	장윤서	전재연	정윤정	조현소	최가람	최송이	홍광근
이지원	임다영	장주영	정 민	정은우	주선경	최나근	최진아	홍성우	이태훈	임보영	장준호	정송현	정인석
주현화	최민용	최하영	황민상										

2009

강민정	공지양	김다영	김민태	김수경	김유정	김정우	김현정	라기범	박우현	서세민	오성영	윤민아	이강현
이동찬	강수연	구성철	김도진	김보미	김수연	김윤숙	김준형	김혜경	류 남	박원준	서주영	왕 양	윤예석
이국진	이문영	강한아	권세민	김도현	김서영	김연진	김윤희	김지윤	김효림	명성울	박인하	서지민	왕효락
윤유미	이규원	이민교	고영훈	권순옥	김동준	김성현	김영애	김재홍	김태웅	김휘은	문재중	박재현	송동리
유 양	윤현진	이기남	이민주	공소연	김다영	김디모데	김세원	김원경	김정기	김현래	남호형	박신후	서모세
양인지	유현경	윤혜영	이 길	이상문	이서진	이웅표	이주연	임수철	장완경	전혜원	정요셉	조화경	최림내
한유진	이선민	이원배	이준엽	임자영	장정호	정다솜	정희준	주민주	최창용	한윤정	이소현	이재열	이지희
장 린	장주한	정명진	제정환	증경영	최한결	한정연	이수진	이재은	임다솔	장성훈	장혜림	정선영	조아람
최그리미	최희권	허이녹	이예지	이재혁	임미리내	장수화	전고은	정수연	조재은	최소현	한수정	황혜지	

2010

강민주	김미옥	김세일	김장원	김진구	김혜진	박서희	박현선	백승호	송민지	신해전	오유리	이경호	이선림
강혜정	김미정	김소현	김재량	김진아	남미란	박소연	박혜연	설혜림	송주호	신현채	유형수	이동희	이선일
고영린	김민성	김영오	김축현	김진우	도재현	박유영	방성준	성유진	신민석	신혜지	윤은수	이미연	이소영
김나라	김빛샘	김용석	김지수	김크리스티안	문병식	박은아	배수현	손명우	신수낭	신환승	윤혜인	이민선	이민선
이소희	김다연	김새로미	김유미	김지훈	김태균	박기수	박지혜	백성기	손수현	신진수	안나경	이가을	이상민
이영민													
이예은	이재준	이충원	자르크와너	티이네스	전윤아	정승연	정현주	채슬기	최인재	한다영	황혜정	이윤희	이재호
이현주	장민섭	전 환	정아름	조배운	최성우	최정아	한유미	이윤경	이지민	임바른	장정우	정동윤	정지은
조소현	최수정	최정환	허재도	이윤서	이지혜	임지혜	전민기	정상호	정진관	조은비	최여진	최주원	홍재현
이재윤	이진희	임해린	전상우	정수길	정현우	주혜민	최예진	추예지	황윤주				

2011

강민주	구성희	권정은	김미정	김소정	김지수	김한별	마상민	박빛나래	박지은	서민지	신윤재	안진주	오세경
강세림	권구영	김기범	김민정	김솔아	김지원	김한수	마유나	박설희	박찬빈	송누리	신재민	양다현	오소라
고승렬	권성현	김데보라	김 별	김연규	김창규	노선영	문성진	박은우	박태현	송동일	신하은	엄보미	오지현
공윤경	권소영	김동주	김보경	김일희	김태경	노혜연	민다준	박준영	배주완	송희원	심혁준	여민영	우정은
곽대현	권영주	김동현	김복원	김종훈	김태용	류지웅	박경모	박지영	백인열	신나라	안종수	오비나	원다니엘라
유 양	이병훈	이인희	이진수	정보름	천현우	최재영	한윤정	황윤선	윤승기	이서현	이재영	이종표	정수린
최가영	최지혜	한호균	황인환	윤 혜	이송리	이전욱	임동원	조상운	최수영	최희웅	허다빛	이규빈	이수경
이지연	임수현	조연희	최유진	한미란	허 민	이민진	이승훈	이지원	전도연	진하경	최윤성	한송이	허성천

2012

강다영	고정윤	김기상	김마리	김소영	김영광	김은정	김창희	김햇살	류지현	박신현	박지형	송여원	양경석
강여진	공주영	김기현	김보라	김소희	김영빈	김은지	김태훈	김혜진	미아티마에	박정혁	박진경	송우현	양서연
강주은	권소라	김동규	김복원	김수연	김원식	김인영	김하슬	김희라	박광영	박종성	배혜진	송현우	양지웅
고근석	권은희	김동주	김선엽	김승민	김원준	김준기	김하영	남은하	박상림	박주현	백라파엘	신재우	예네타니엘
고여경	김 결	김륜현	김소연	김연민	김 윤	김지현	김한샘	도재형	박소담	박중현	송승현	신효범	여마혜
오성원	윤영주	이다현	이승민	이윤희	이푸른하늘	임명환	전준영	정영민	조혜린	최수빈	최홍은	황다현	오진희
윤유상	이상호	이신성	이재원	이해림	임수빈	정다현	정유진	종복하	최영운	한동윤	황선미	왕우희	윤진솔
이서영	이예림	이정섭	이현승	임지원	정소영	정재명	주윤진	최유미	한윤하	황소영	유민지	윤해남	이세준
이원희	이준호	이형섭	임하은	정승진	조서윤	최고우니	최하경	홍유진	황희영	유지수	이광명	이소정	이유정
이진아	이효정	장재웅	정안나	조예림	최도담	최하영	홍지수						

2013

강나경	권정민	김기풍	김민정	김수현	김지안	민경서	방창훈	송영인	심성문	오신지	이대건	이수정	이재운
강재솔	김고운	김다슬	김민희	김승연	김지현	박기범	백지영	손윤하	양미나	옥지윤	이민희	이슬찬	이종빈
강한솔	김근만	김다예	김보람	김인희	김형근	박지영	백진현	손진우	엄기영	원성연	이사론	이은아	이준석
고현정	김근진	김도현	김선영	김정환	김호빈	박지현	서재만	신권호	엄수빈	이경모	이소연	이은일	이중식
권기원	김근환	김동휘	김선영	김정훈	나태현	박채린	손수림	신영대	오상엽	이다솔	이수아	이인기	이지숙
이지은	장형우	정선경	조현우	최유라	한재웅	황유리	이충현	장혜연	정예원	주아영	최윤정	함근희	황중현
임소정	전유빈	정태현	차준호	최은성	허재우	임휘준	전효성	정한범	최관순	최현경	황근택	장수윤	정다인
정혜원	최성준	하성봉	황나연										

2014

강미래	고은별	김나현	김수민	김지원	도윤선	백지원	송민우	안희섭	유다현	이산하	이예진	이지영	이현아
임동일	강민지	고형화	김민정	김요한	김창훈	박세희	서 희	송승아	양은영	유영채	이서연	이은정	이진아
이현준	임세령	강유경	권청화	김민지	김종태	김태수	박우정	설진환	신성은	양희조	이경민	이서연	이주민
이채은	이형진	정다운	강주은	김규리	김범수	김주연	김혜민	박주원	성수환	안가형	오해림	이다원	이수민
이준혁	이학범	이혜인	정민주	강지은	김나연	김소진	김지원	노연정	박찬우	손은아	안윤정	원하경	이병학
이수범	이지영	이해인	임규진	정성윤	정정훈	조현아	최민지	최유미	허한솔	정주원	주소연	최상일	최윤제
허혜원	정지영	정팅팅	최서인	최지수	홍의기	정찬선	최다솔	최소정	최희윤	조영림	최민수	최승환	한정아

2015

Valentine Jamba	공지윤	기지수	김민석	김영은	김은지	김현아	남동훈	박세인	반아라	선주영	송하석	양호준
윤수연	이민욱	강성일	곽원경	김남훈	김보경	김예지	김인기	김현아	노시완	박소연	변효주	세지르 오스알도 카바스칸고
신성윤	염선아	윤유정	이성재	강지현	권서영	김도영	김보곤	김요셉	김지원	김혜빈	도현호	박소현
심소윤	오서연	윤은주	이소립	고이경	권예지	김미나	김선민	김원희	김진희	김희선	박민혜	박수영
손민재	양윤서	우혜주	윤정인	이수영	고지웅	권하윤	김민경	김수지	김유선	김채연	나현준	박선민
서혜선	손정우	양혜민	유승빈	이구민	이수지							
이수현	이지형	임남주	장자함	정유은	최서영	하늘가람	황동경	이재운	이하영	임수진	장찬양	정재연
한민희	황아현	이정우	이하영	임예신	정동진	정희지	최지윤	한정민	이주희	이한빛	임메이플	정세영
최하늘	한충헌	이지은	이혜민	장기기	정수빈	최경환	클라라 벨트란 아리아스	허 근				



Isla de Pascua - 이스터섬
La Isla de Pascua, también conocida como Rapa Nui, es un territorio insular de Chile situado en el sureste del océano Pacífico. Reconocida por sus enigmáticas estatuas de piedra llamadas moai, la isla destaca por su aislamiento geográfico, su paisaje volcánico y su particular herencia cultural, que la convierten en uno de los lugares más singulares del planeta.
태평양 남동부에 위치한 칠레령 섬인 이스터섬(라파 누이)은 신비로운 석상 모아이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화산 지형과 고립된 환경,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인해 지구상 가장 특별하고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로 평가된다.



Valparaíso - 발파라이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La ciudad de Valparaíso es un ejemplo destacado del desarrollo urbano y arquitectónico de América Latina a fines del siglo XIX. Conserva construcciones históricas de los inicios de la era industrial, como los tradicionales funiculares que suben y bajan por sus empinadas laderas. En reconocimiento a su valor universal excepcional, fue declarada Patrimonio de la Humanidad por la UNESCO en 2003.

발파라이소는 19세기 말 라틴아메리카 도시 발전의 대표적 모델로, 거대한 언덕을 오르내리는 전통 funicular과 산업시대 초기의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다.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Caño Cristales - 카노 크리스탈레스
Ubicado en el municipio de La Macarena, departamento del Meta, el "río de los cinco colores" deslumbra con sus tonos rojos, amarillos y verdes entre cascadas y formaciones rocosas.
메타 주 리 마케레나 지역에 위치한 '다섯 가지 색의 강'. 붉은빛, 노란빛, 초록빛이 폭포와 바위 지형 사이에서 아우라지며 환상적인 색의 향연을 펼친다.



3·5회 졸업생



3~8회 졸업생



8~13회 졸업생



14~19회 졸업생



20~27회 졸업생



28~34회 졸업생



35~41회 졸업생



47~51회 졸업생



52~55회 졸업생



Capitolio de La Habana – 하바나 카피톨리오



El Capitolio de La Habana: El Capitolio Nacional es el edificio más majestuoso de La Habana y la sede de la Asamblea Nacional. Similar al Capitolio de Washington, pero inspirado en realidad en el Panteón de París, alberga la tercera estatua cubierta más grande del mundo, una mujer de bronce de 11 metros de altura que representa a una mítica guardiana del trabajo y la virtud. 카피톨리오의 수도 하바나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로, 쿠바 국회의사당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프랑스 파리의 팡테옹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되었다. 건물 내부에는 노동과 미덕을 상징하는 높이 11미터의 청동 여신상이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실내 조각상이다.



Cartagena de Indias - 카르타헤나



En el corazón de Cartagena de Indias, las calles coloridas del centro histórico se adornan con balcones coloniales y la icónica torre de la Catedral sobresaliendo al fondo.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의 중심, 역사 지구의 다채로운 거리. 식민지풍 발코니로 장식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밀리시 대성당의 탑이 도시의 하늘선을 장식한다.



Salto Monday - 먼데이 폭포



Con una caída de más de 40 metros, el Salto Monday es una de las maravillas naturales de Paraguay. Rodeado de vegetación exuberante, este imponente salto de agua ofrece un paisaje majestuoso que refleja la riqueza natural del Alto Paraná. 먼데이 폭포는 40미터가 넘는 낙차를 자랑하는 파라과이의 대표적 자연 일경 중 하나이다. 울창한 녹음 사이로 떨어지는 웅대한 폭포는 일도 파라나 지역의 풍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



편집진 소개

편집진

제38대 스페인어과 학생회 ILUMINA 회장	24 김지윤(기획 총괄)
70주년 책자 기획 TF	24 홍수아, 25 김근아, 25 김민정, 25 이지예
Los Amigos 회장	24 유민수
Los Novios 회장	25 백진우
Los Toros 회장	23 조은비
Pie de Perro 회장	25 정현도
Aula 회장	24 이예성
자문 교수	문남권
학과장	김경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